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 석사학위논문

중견국(Middle Power) 캐나다의
자기존재규정과정 분석(1942-45)

- 현상학적 접근 -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정 은 희

중견국(Middle Power) 캐나다의 자기존재규정과정 분석(1942-45)

:현상학적 접근

지도교수 최정운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정 은 희

정은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재성

김상배

최정운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와 상호인식을 매개로 하여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중견국(middle power)’이라는 하나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국가의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외교전략 형성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국가의 자기발견’이다. 국가가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규정하는 자기발견의 과정은 정책결정의 과정보다 더 근본적인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인식의 틀로 작용하게 된다.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캐나다의 국가정체성의 기원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가 자기존재를 규정하는 과정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대타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의 자기존재규정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 철학의 한 영역인 현상학(phenomenology)의 내용 중에서 후설(Edmund Husserl)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와 관련된 논의의 내용을 연구의 방법론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후설의 상호주관성 이론은 자아의 자기규정이 타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타자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견국’으로서 자기를 규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영연방에 속해 있으면서 1930년대 까지 독립적 외교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캐나다는 1, 2차 대전에 참여함으로써 국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이에 따라 1942년부터 국제기구의 창설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1940년대 당시 캐나다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실제적 국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반해 강대국들은 캐나다를 약소국들 중의 하나로 인식할 뿐이었다. 캐나다의 수상을 포함한 주요 관료들은 강대국들과의 국제적 경험을 통해

강대국들이 인식하고 있는 캐나다의 위계적 지위는 약소국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이론(functional principle)’이라는 외교정책을 고안하였지만 이는 국가의 기능적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일 뿐 국가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당시 캐나다의 높은 실질적인 국력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모임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소국들과 동일한 범주로 묶여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의 중요한 외교적 과제는 기능적 능력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대국에는 속할 수 없지만 약소국과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은 캐나다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대타적인 자아의 모습이었다.

요컨대 본 논문은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논의로 부상하고 있는 중견국 연구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고, 캐나다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세부 과정을 추적하며, 국가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계급적 존재인 ‘중견국’이라는 자기존재를 규정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캐나다, 중견국, 국가정체성, 계급적 존재, 상호주관성, 대타자아
학 번: 2011-23189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사례설정	3
3. 연구설계	4
1) 연구시기 설정 및 연구 의의	4
2) 연구방법	6
4. 논문의 구성	8
II. 이론적 논의	9
1. 기존연구소개 및 비판적 검토	9
1) 시기에 따른 분류	9
2) 속성에 따른 분류: 행태와 능력	10
3) 국제정치이론에 따른 기존연구비판	13
(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따른 중견국 연구 분석과 구성주의에 따른 한계점 비판	13
(2) 구성주의에 따른 중견국 연구 분석과 그 한계점	17
2. 현상학적 분석방법	19
1) 후설의 구성적 현상학	19
(1) 후설의 문제의식	19
(2) 현상학의 핵심개념설명: 지향성, 구성작용, 지평	20
2) 후설의 상호주관성 이론	22
3) 미드의 자아개념	23
4) 현상학적 중견국론	24
(1) 세계인식	25
(2) 타자경험	26

(3) 지평형성	27
(4) 대타자아형성	27

Ⅲ. 캐나다의 타자경험 1942-1943 29

1. 캐나다 외교정책의 변화 1942-1943	30
1) 캐나다의 고립주의 정책	30
2)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의 변화	33
2. 외교적 사건과 타자경험의 계기들	35
1) 1941년 8월 뉴펀들랜드 회담(Newfoundland Conference) ...	36
2) 1942년 1월 워싱턴 회담(Washington Conference)	36
3) 연합위원회(Combined Committees)	38
4) UNRRA의 창설	39
3. 캐나다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변화	40
1) 매켄지 킹(Mackenzie King)	40
2) 노먼 로버트슨(Norman Robertson)	42
3) 흄 롱(Hume Wrong)	46
4) 레스터 피어슨(Lester Pearson)	53
4. 캐나다 관료들의 타자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58
1) 세계이해	58
2) 타자경험	60
3) 지평형성	61
(1) 캐나다 관료들의 지평	61
(2) 위계적 지평의 의미	62
5. 소결	64

Ⅳ. 캐나다의 대타자아형성과정 1944-1945 66

1. 국제기구의 창설과 캐나다의 외교전략	66
------------------------------	----

1) 덤바턴오크스 회의	66
2) 캐나다 정부의 외교전략: 기능이론 vs 미들파워	67
2. 대타자아형성과정	69
1) 기능이론 외교이념의 형성	70
2) 대타적 자기규정으로 미들파워 개념 형성	74
(1) 피어슨의 인식내용	74
(2) 리드의 인식내용	80
3) 미들파워개념에 대한 롱의 비판	82
3. 피어슨의 중견국정체성 형성	86
1) 롱과 피어슨의 차이	86
2) 피어슨의 국제정치적 지평	89
(1) 국제적 차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89
(2) 국내적 차원: 영연방주의와 민족주의	92
V. 중견국인정 논쟁	97
1. 미들파워 개념의 구체화	97
2. 미들파워개념을 둘러싼 미국과 캐나다의 논쟁	100
1) 미국의 주장: 형식적 주권평등성의 관점	100
2) 캐나다의 주장: 실질적 주권불평등성의 관점	102
3) 중견국 인정논쟁에 대한 이론적 분석	103
3. 계급적 존재로서 중견국 의미 분석	106
VI. 결론	112
1. 중견국으로서 자기존재규정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정리	112
2. 1945년 이후 캐나다 외교정책의 구성주의적 정리	113
1) 캐나다의 국제사회 내 ‘국가역할규정’과 ‘국가이익정의’	113
2) 캐나다의 외교정책형성	116

3. 현상학적 중견국 연구의 함의	117
4. 계급적 존재로서 중견국 정의의 함의	118
참고문헌	121

표 목차

<표 2-1> UNRRA에 기부한 국가 중 상위 5개국의 기금액	39
---	----

I. 서론

1. 문제제기

국제사회에서 캐나다는 대표적인 중견국(middle power)으로 분류된다.¹⁾²⁾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캐나다는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규정하였고, 강대국들이 국제기구의 창설을 논의하는 과정에 캐나다도 참여하여 중견국으로서 약소국들과는 구별되는 권리를 보장받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는 비강대국들이 가진 ‘기능적 능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강대국들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중견국’으로서의 지위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함께 보장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중견국으로서의 지위확보를 포기하지 않았다. 1950년대 냉전시기부터 국제원조와 국제평화활동을 지속적으로

-
- 1) 캐나다의 중견국 지위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J. King Gordon, ed., *Canada's Role as a Middle Power*. (Toronto: Canad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66); John Holmes, *The better Part of Valour: Essays on Canadian Diplomacy* (Toronto: McClelland & Stewart, 1970); Canada: A Middle-Aged Power (Toronto: McClelland & Stewart, 1976).
 - 2)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가를 일컫는 ‘middle power’를 번역할 때 ‘미들파워’와 ‘중견국’, ‘중견국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중견국’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국가를 부를 때 다른 용어로서 중견국이라고도 부른다. 중견국은 물리적 국력이 중간정도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특정한 외교행태를 보이는 국가를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도 특정국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중견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 캐나다가 중견국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분석시기에 사용되는 미들파워라는 용어는 주로 개념중심의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중견국의 개념이 아직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middle power’가 어떠한 개념을 담게 되는지 추적하고 당시 미들파워로서 의미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들(middle)이 국가보다는 개념적인 의미로서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중간’ 또는 ‘중견’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미들’이라는 음독그대로를 사용하고자 한다.

수행하였고,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표방하면서 중견국가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냉전의 시기와 탈냉전을 거쳐 현재까지 비교적 일관된 형태의 외교정책을 보여주면서 ‘국제평화와 인간안보를 옹호하는 국가’라는 상징적(symbolic) 이미지를 형성해왔다.

이처럼 중견국의 구체적인 정의와 외교정책의 내용은 냉전시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캐나다를 포함한 중견국들에 대한 연구도 냉전 이후에 중견국들이 보여준 정책의 내용과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³⁾ 국외적으로는 중견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처한 지구적 상황과 같은 국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고 국내적으로는 중견국들의 물리적 능력의 크기나 국내 정치상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견국가들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중견국’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다른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중견국이 근대 국제정치에 중요한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자국의 이해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독특하고 구별되는 주체로서 자기를 규정하고 그러한 존재로 다른 국가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다.

국가의 외교정책과 그를 통해 발생하는 국제정치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외교전략 형성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전략을 형성하는 데 더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바로 ‘국가의 자기발견’이다. 국가가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규정하는 자기발견의 과정은 정책결정 과정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단계에서 형성되어 국가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식의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공존하고 있는 세계의 지평에서 자국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국가의 객관적 이해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3)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Vol. 49, No. 1 (2009), pp. 13-16.

의미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국가의 자기존재규정의 원인과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자기존재규정은 다른 국가와의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국가의 자기존재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사례설정

본 논문은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전략을 사례로 들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와 상호인식을 매개로 하여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캐나다를 연구사례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캐나다는 양차 대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정치의 장에서 처음으로 중견국으로 규정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견국가라는 관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좀 더 명확하게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정치단위로서 중견국가가 언급된 것은 15세기 유럽국가체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⁴⁾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가 붕괴되고 전 지구적 차원으로 국제정치의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국제정치학이 시작된 것은 양차 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국제정치학적 의미로서 중견국의 탄생이 시작된 것은 캐나다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중견국으로 규정되는 캐나다가 본 연구의 질문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캐나다가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규정하던 당시에 캐나다가 처한 상황은 다른 국가가 겪지 못한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를 사례로 선정할 경우 국가의 자기 존재 규정과정을 보다 다

4) 김치욱, 2009. pp. 11-12; Carsten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cmillan, 1984), pp. 10-44. chapter 1 참조.

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캐나다는 1763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고 양차대전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법적인 독립국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준 식민지국가로 인식되었다. 또한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세력이 부상하면서 영국과 미국 사이에 세력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캐나다는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에 함께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체제의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외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이라는 강대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2차 대전의 참전으로 인한 결과로써 국력의 상승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과 캐나다의 상호작용과 상호 인식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가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는 과정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가 자기존재를 계급적인 존재로서 규정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존재의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국의 위계적인 존재의 위치를 찾고 존재가치와 존재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존재규정방식보다 선행하는 것이며 국가가 숙명적으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계급이라는 의미는 특정한 성향이나 경제적 지위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사회학적 의미의 계급이 아니다. 다른 존재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다는 존재론적 차원의 가치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캐나다는 다른 강대국이나 약소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캐나다의 존재가치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자국의 국가정체성을 중간수준의 존재가치를 의미하는 중견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캐나다 사례연구는 국가가 스스로를 계급적 존재로 규정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3. 연구설계

1) 연구시기 설정 및 연구 의의

중견국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국가의 외교행태나 물리적 국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견국 외교전략의 표면적인 의미만 파악할 뿐이다. 냉전 이후에 보여준 중견국들의 외교정책들과는 다르게 2차 대전부터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견국들의 외교적 행보는 단순히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특히 캐나다가 중견국으로서 존재를 규정하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곧 캐나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음과 동시에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냉전이 시작된 1950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패권국으로 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팽팽한 정치적 갈등양상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중견국가라는 계급적 존재를 나타내는 개념에, 국제평화를 중시하고 다자주의적 국제사회를 지향한다는 행태적 속성을 연결 지음으로써 초강대국들로부터 일정영역 자유로운 국제정치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거나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일어난 1939년부터 국제연합이 창설되던 1950년까지 국제정치 양상과 1950년 이후부터 냉전시기, 탈냉전시기까지의 국제정치 양상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전자의 시기는 패권국의 지위를 갖는 강대국이 없었고 3 강대국(미국, 영국, 소련) 또는 4 강대국(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비교적 서로에게 강대국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캐나다가 처음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실질적인 독립국으로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고, 또한 정체성을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도 크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캐나다는 ‘중간’이라는 개념에 연결시킬 행태적 속성으로서 특정한 외교전략들을 형성하지 못했다. 중간이라는 개념은 단지 강대국들과 약소국들 사이에서 존재의 가치 수준을 일컫는 위계적 차원의 의미일 뿐이었다.

5) 중견국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2장 이론적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캐나다가 스스로를 중견국이라고 규정지었던 이유와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캐나다가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1940년대 초반부터 냉전 이전을 연구시기로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세부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강대국들로부터 존재를 거부당하는 좌절을 경험하였다. 캐나다가 국제사회 내에서 중견국이라는 존재로서 규정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기의 존재규정이 필요하였고, 동시에 약소국과 강대국으로부터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자기의 존재규정과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존재인정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가 중견국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국가가 정체성으로서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계급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계급적인 존재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 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세계-내-존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존재규정의 과정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가 갖는 계급적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논의로 부상하고 있는 중견국 연구에 대한 기원(origin)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는 양차 대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정치학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중견국가로서 탈냉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중견국가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전통적 중견국가라고 불리고 있다.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이 냉전 시기 이후의 중견국가들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중견국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를 통해 중견국 연구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국가가 외교전략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의 자기존재규정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

가의 자기존재규정의 원인과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고 국가의 외교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 자기존재규정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가의 자기존재규정을 해명하기 위해서 철학의 한 영역인 현상학(phenomenology)의 내용 중에서 '상호주관성'과 관련된 논의의 내용을 연구의 방법론으로 하여 캐나다의 자기존재규정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존재규정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들이 외부적 상황을 정의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의 역할을 정의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국의 존재 성격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개념화하는지 살펴보고 그 언어적 개념규정이 어떻게 국가의 이익을 구성하고 국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반응하고 인식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을 분석해야 한다.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면서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 별로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요인들이 외교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1940년대 초반 캐나다가 중견국으로서 자기존재규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핵심적 관료들의 영향력이 다른 국내적인 요인들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핵심 지도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캐나다의 자기존재규정과정을 규명해 나가고자 한다.⁶⁾

정치지도자들의 인식을 알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언어로 표현된 주요한 발언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공식문서나 비공식 외교문서, 상·하원의 정책토론기록문서, 정책결정자의 연설 등을 활용하여 지도자들

6) 본 논문에서 '캐나다'라고 행위의 주체를 언급할 때 캐나다 정부와 국민을 모두 포함한 추상적 주체로서 국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캐나다 정부를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 당시 캐나다의 여론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고 캐나다 외교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몇몇 핵심관료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1940년대 초반 캐나다가 중견국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는 핵심적 관료들의 영향력이 다른 국내적인 요인들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핵심 지도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캐나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규명해 나가고자 한다.

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안에 내재된 의미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토대로 캐나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작성되었던 캐나다정부의 메모랜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캐나다 수상의 일기와 주요 외교부 핵심 관료들의 연설문, 일기 등을 1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중견국에 대한 기존연구를 분석하고 현상학적 중견국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1942년부터 1943년까지 캐나다정부가 강대국들과의 교류를 통해 타자경험을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본다. 캐나다가 경험한 여러 가지 외교적 사건들 중 캐나가 관료들이 국제사회 내에서 자국의 지위를 인식하는 데 있어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사건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캐나다의 주요 핵심관료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타자경험의 내용을 현상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3장에서 살펴 본 타자경험들이 ‘중견국’이라는 대타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44년부터 캐나다 내에서 등장하는 미들파워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5장에서는 ‘미들파워’라는 개념을 둘러싼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논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각각의 주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계급적 존재로서 중견국의 의미가 어떠한 논의를 담고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6장의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며, 본 연구가 담고 있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기존연구소개 및 비판적 검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와 호주 등의 국가들이 스스로를 중견국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그 후 냉전,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캐나다와 호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중견국으로 분류되거나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규정하면서 중견국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중견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중견국들의 외교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견국 정의와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중견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시기에 따른 분류

중견국들은 우선 시기별로 분류될 수 있다. 스스로를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였다. 이들은 국제연합의 창설과정에서 다른 약소국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로서 중견국으로 인정받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냉전 기간 동안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면서 중견국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와 더불어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국가들을 포함하여 제 1세대 중견국이라고 한다. 1세대 중견국들은 냉전 기간 동안 평화유지, 국제원조 등의 다자주의와 국제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특징적인 외교정책들을 보여주었다.⁷⁾

7) 제 1세대 중견국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J. King Gordon, ed., *Canada's Role as a Middle Power* (Toronto: Canad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1996); Jon B. McLin, *Canada's Changing Defense*

냉전 종식 이후 신흥부국들이 등장하면서 중견국은 브라질,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하는 제 2세대 중견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 1세대 중견국들이 안정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형태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평등성을 가지고 서유럽적인 가치를 공유하던 것과 비교할 때 2세대 중견국들은 이들과 상반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즉, 권위주의 국가로부터 발생하여 사회적 불평등성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었고, 서유럽적인 사회 민주주의적 가치도 불안정한 상태로 이식되어 국내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1세대 중견국들과 이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⁸⁾ 탈냉전 이후 신흥 부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 대국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정보화, 지구화, 환경, 빈곤 등 여러 가지 초국적 난제들이 발생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정치의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제 3세대 중견국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속성에 따른 분류: 행태와 능력

Policy, 1957-1963: The Problems of a Middle Power in Alliance.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7); Carsten Holbraad, "The Role of Middle Powers,"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6, No. 1 (March 1971), pp. 77-90.; Carsten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Cranford Pratt, ed., *Middle Power Internationalism: The North-South Dimension.* (Kingston and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0); Andrew F. Cooper, Richard A. Higott, and Kim Richard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Andrew F. Cooper, ed.,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Macmillan Press, 1997); Max Otte, *A rising Middle Power?: German Foreign Policy in Transformation, 1989-2000.*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 8) 전통적 중견국과 신흥 중견국의 비교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Eduard Jordaan, "The Concept of a Middle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Distinguishing between Emerging and Traditional Middle Powers," *Politikon: South African Journal of Political Studies*, Vol. 30, No. 1 (2003), pp. 165-181. 신흥 중견국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Wayne A. Selcher, ed., *Brazil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Rise of a Middle Power.* (Boulder, Co: Westview, 1981); Jonathan H. Ping, *Middle Power Statecraft: Indonesia, Malaysia and the Asia-Pacific.* (Hampshire and Burlington: Ashgate, 2005)

시기별로 중견국을 분류할 수 있지만 중견국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들의 ‘외교적 행태’와 국가의 ‘물질적 능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중견국을 정의할 수 있다.⁹⁾ 중견국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외교적 행태를 기준으로 중견국을 정의한다. 이러한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쿠퍼(Andrew F. Cooper)는 중견국들의 공통적인 외교행태로서 ‘국제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태도’, ‘국제적 논쟁에 대한 타협적 자세’, ‘선량한 국제시민의식(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등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¹⁰⁾ 또한 쿠퍼는 그의 다른 연구에서 중견국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패턴으로서 ‘촉매자(catalysts)’, ‘촉진자(facilitators)’, ‘관리자(managers)’라는 3가지 역할을 소개하고 있는데 촉매자로서 외교적 이니

9) 노쌀(Kim R. Nossal)은 중견국을 middlepowerhood와 middlepowermanship이라고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middlepowerhood(중견국자격)는 중견국을 능력차원에서 정의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국가들의 사이즈나 권력 등의 물리적 국력을 수치상 위계적으로 나타냈을 때 중간정도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중견국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을 내포하는 용어이다. middlepowermanship(중견국기질)은 국제주의나 다자주의와 같이 특정한 외교적 행태를 보이는 국가로서 중견국을 정의하는 방식을 내포하는 용어이다. Kim Richard Nossal, "Middlepowerhood' and 'Middlepowermanship' in Canadian Foreign Policy," in Nikola Hynek and David Bosold ed., *Canad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oft and Hard Strategies of a Middle Power*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20-34; 길리와 오넬(Bruce Gilley and Andrew O'neil)도 중견국을 정의할 때 물리적 능력(positional)과 외교행태(behavioral)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Bruce Gilley and Andrew O'Neil, ed., *Middle powers and the rise of China*.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4); 김치옥은 현실주의적 접근으로서 ‘능력’과 자유주의적 접근으로서 ‘행태’로 구분하여 중견국의 정의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김치옥, 2009; 중견국가에 대한 챗닉(Adam Chapnick)의 연구에서는 중견국의 정의를 3가지 기준으로 설명한다. 즉, 기능적(functional), 행태적(behavioural), 위계적(hierarchical)으로 분류하여 중견국을 정의하고 있다. Adam Chapnick, "The middle power," *Canadian Foreign Policy Journal*, Vol. 7, No. 2 (1999), pp.73-82.

10) Andrew F. Cooper, Richard A. Higgot, Kim R.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p. 19.

셔티브를 행사하고 촉진자로서는 각종 의제를 설정하며 관리자로서는 국제제도의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 쿠퍼 이외의 많은 연구들도 중견국을 국제주의나 다자주의와 같은 특징적인 외교적 행태를 보이는 국가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¹²⁾

하지만 이와 같이 외교적 행태로서 중견국을 정의하는 경우 논리순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물리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중견국을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¹³⁾ 행태적 정의에 따른 중견국 연구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외교정책을 통해 중견국이라고 정의된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논리순환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행태에 따라 중견국을 정의할 경우 전통적 중견국가인 캐나다와 호주, 북유럽국가들의 외교적 행태를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들이 공유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특징들 즉, 인도적 국제주의나 다자주의와 같은 특징들이 중견국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서구 선진국들의 특징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중견국에 포함될 만큼 충분히 물리적 국력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¹⁴⁾ 이처럼 중견국 정의에 있어서 논리순환의 오류와 서구적 가치 중심의 행태를 통한 분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중견국을 국력에 따라 정의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능력에 따른 정의는 '중간'을 설정함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 국력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¹⁵⁾ 국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대표적으로 인구, GNP, GDP, 영토크기, 군사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바이탈(David

11) Andrew F. Cooper, ed.,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Macmillan Press, 1997)

12) Cranford Pratt, ed., *Middle Power Internationalism: The North-South Dimension*.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0)

13) 김치욱, 2009. p. 18, Gilley and O'Neil, 2014. p.

14) 김치욱, 2009. p. 18.

15) Gilley and O'Neil, 2014. Chapter 1.

Vital)은 중견국을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서 인구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선진국의 경우 1000-1500만, 후진국의 경우 2000-3000만을 하한선으로 설정하였다.¹⁶⁾ 버튼(John W. Burton)은 중견국을 비강대국 중에서 발전된 산업과 실제적 혹은 잠재적 핵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라고 정의하였다.¹⁷⁾ 보다 최근의 연구로서 신흥중견국을 주제로 한 핑(Jonathan H. Ping)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핑은 9개의 통계적 지표(인구, 지리적 크기, 군사지출, GDP, GDP의 실제증가율, 전문가적 가치, 인구당 GNI, trade as a percentage of GDP, life expectancy at birth)를 제시하여 중견국을 구분하였고, 2000년도를 기준으로 APEC, ASEAN, SAARC, ECO에 속하는 38개 국가에 통계적 지표를 적용하여 14개의 중견국을 선정하였다.¹⁸⁾ 이상과 같이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중견국을 정의하는 연구들은 외교행태를 기준으로 중견국을 연구하는 것 보다 더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국제정치이론에 따른 기존연구비판

(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따른 중견국 연구 분석과 구성주의에 따른 한계점 비판¹⁹⁾

외교적 행태와 물리적 국력이라는 국가의 속성을 통해 중견국을 정의하고 분석한 기존연구는 국제정치이론을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다. 중견국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틀로서는 현실주의(realism)와 자유주의(liberal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들 수 있다.²⁰⁾

16) David Vital, *The Inequality of States: A Study of Small Pow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67) p. 8.

17) John W. Burton, *International Relations: A Gener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18) Jonathan H. Ping, *Middle Power Statecraft: Indonesia, Malaysia and the Asia-Pacific*. (London: Ashgate, 2005)

19) 본 논문에서 언급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알츠 이후의 신현실주의와 제도를 강조하는 자유제도주의를 뜻한다.

20) Gilley and O'Neil, 2014. Chapter 2. 김치욱은 자유주의 전통과 현실주의 전통으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중견국은 약소국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물리적 국력에 따라 국제정치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때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강대국과 약소국으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중견국도 약소국의 일부로서, 국제정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단지 강대국에 편승하거나 균형을 이루는 수동적인 행위자에 불과할 뿐이다.²¹⁾ 자유주의적 시각도 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중견국을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유주의는 국가들 간의 복잡한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국가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규범과 제도를 통해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견국이 국제제도와 규범을 존중하고 형성하는 외교정책을 통해 중견국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²²⁾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을 전제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무정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세력균형에 따라 국가이익이 결정되고 국가정책이 형성된다고 설명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국제제도에 따라서 형성된 국제질서에 따라서 국가이익이 정의되며 이에 따라 국가 간 갈등이 재조정될 수 있는 대안적인 구조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유주의는 현실주의보다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정부성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높게 보지만 그럼에도 두 이론은 모두 국가이익을 정의함에 있어 ‘힘의 균형’과 ‘제도’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이익을 규정하고 외교정책을 형성하는데 능동적 주체이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반응하는 수동적 주체로 규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구성주의는 두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며 국가의 이익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능동적인 사회적 작용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성주의는 국가의 이익이 구조적 요인의 일방적인 영향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행위자간의 상호 구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로 나누어 중견국을 분석하고 있다. 김치욱, 2009.

21) Gilley and O'Neil, 2014. pp. 24-25.

22) Gilley and O'Neil, 2014. pp. 25-26.

라고 설명한다. 행위자는 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넓게는 국제구조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구조에 대한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구조를 강조하는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는 국가정체성이 국가이익과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가 처해있는 대내·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행위의 주체로서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중견국을 연구함에 있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처럼 국제정치학의 무정부성을 강조하게 되면 중견국은 물리적 능력에 따른 위계적 분류에 따라 중견국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비록 다른 약소국들보다는 국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약소국들과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에 따라 수동적으로 편승하거나 균형을 이루는 태도만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국제제도에 따라 형성된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의 이익을 형성한다고 할지라도 제도와 질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시각만으로는 중견국이 보여주는 주체적 행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중견국을 분석할 때 연구의 초점이 되는 것은 '국가정체성'이다. 중견국들은 스스로를 중견국이라고 규정하면서 능동적으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 내에서의 국가역할을 스스로 규정하며, 강대국을 저지하고 중견국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약소국들의 리더역할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견국의 능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익을 규정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중견국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의 핵심주장이다.

이러한 이론분석에서 나아가 실제 국가 사례를 통한 중견국의 경험 연구를 할 때 중견국의 외교정책은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적 설명방식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맥락들이 얽혀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와 호주가 스스로 중견국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국가의 국력이 위계적으로 볼 때 미국, 영국과 같은 강대국보다는 낮지만 약소국들보다는 높은 중간적 위치에 있었던 이유 때문인 것은

맞지만 국력에 기반을 둔 설명은 이들이 스스로 중견국이라고 규정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을 뿐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오히려 국력은 이들이 중견국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작용한 성질의 것일 뿐이었다. 왜 중견국이라는 지위로 인정받고자 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다. 또한 냉전기간 동안에 1세대 중견국들이 국제주의, 제도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을 창출했던 것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제도를 통해 강대국을 제지하고자 했던 의도 때문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를 통한 규범창출이라는 외교적 행태를 보여주었던 국가를 왜 굳이 ‘중견국’이라는 특정한 범주로 규정하여 연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때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다. 자유주의적 설명은 ‘중견국’과 ‘국제제도’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왜 특정 국가들이 ‘중견국’의 지위를 추구했으며, 국제제도, 평화유지와 같은 특정한 외교행태들을 공통으로 보여주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제구조, 제도와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이라는 요소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중견국이 처해있던 국제상황의 맥락과, 국가 내부적 역사, 특수성 등을 통해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성주의적인 시각을 통해 중견국을 분석할 때 비로소 중견국들이 추구했던 국가이익의 성격이 단순히 안보나 경제적 성장과 같은 국력의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구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위상승, 국가위신 등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요약하면, 중견국 연구에 있어 물질적 국력수준이 중간이었기 때문에 중견국이 될 수 있었는가, 아니면 냉전과 같은 특수한 국제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국제제도주의를 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중견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외교적 행태들을 공통으로 형성하게 되었는가와 같은 설명방식은 불충분하다. 1세대 중견국들이 국제사회에서 중견국담론을 꾸준히 형성하면서 국가이익을 규정하고 외교전략을 형성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견국’이라는 지위가 가져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가정이 필요하며, 바로 탈냉전 이후 2세대 중견국들이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이 1세대 중견국들이 부여해 온 ‘중간’이라는 단어가 가진 상징적

의미와 연관된 것이라는 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견국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2) 구성주의에 따른 중견국 연구 분석과 그 한계점

중견국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성주의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이론으로서 구성주의가 논의하는 핵심내용은 행위자(agency)와 구조(structure)문제, 국가정체성과 국가이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현실주의와 자유제도주의는 힘의 균형이나 국제제도가 행위자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면서 구조결정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반해 구성주의는 행위자와 구조 사이에 상호구성적 속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즉, 구조적 요인이 행위자의 행동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행위자가 구조 자체를 구성하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구성주의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은 ‘국가정체성’이다. 국가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주목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국가정체성이 국가이익을 규정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구성주의의 핵심내용이다.

구성주의에 따라 경험연구를 진행할 때 특정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국가의 국가정체성부터 파악해야 한다. 특정한 국가정체성을 포착하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형성된 국가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때 국가이익을 얻기 위해 고안된 외교정책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정체성에 주목하여 국가이익과 연결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성주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주어진 환경과 구조적 조건에서 왜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는 것이 구성주의의 한계이다. 국가들의 경험사례를 통해 볼 때 다른 국가가 비슷한 국제구조적 환경의 영향과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서로 이질적인 국가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구성주의는 국가의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국가정체성에 주목한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특수한 국가정체성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사회학의 이론적 토대 속에서 형성된 국제정치이론이다. 대표적으로 하버마스의 근대성 이론과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이 구성주의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기든스는 그의 구조화 이론을 통해 주체와 객체, 개인과 사회는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구성하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웬트는 이러한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주체와 구조의 상호구성적 설명을 국제정치학에 적용하였다. 웬트의 구성주의는 구조주의와 개체주의라는 두 영역의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통찰을 주고자 했지만 한편에서는 두 영역의 통합이 부분적인 절충에 그쳤을 뿐이고 국제정치현상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성격의 메타이론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³⁾

구성주의를 중견국연구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러한 구성주의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른다면 중견국의 상대적 국력이나 국제주의와 같은 구체적인 외교정책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견국으로서 갖는 국가정체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 같은 국가들은 국제제도와 다자주의, 국제평화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이익을 규정하고 외교정책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왜 캐나다와 호주가 국제평화와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구성주의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정체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구성주의적 시각만으로는 부족하다.

본 논문은 구성주의가 국제체제라는 구조와 국가정체성이라는 개체의 상호주관적 구성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특히 개체에 초점을 맞추어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구성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즉, 1940년대 초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당시 캐나다가 스스로를 ‘중견국’이라고 자기규정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해 중견국이라는 자기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캐나다에

23)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의미와 한계,” 『국제정치학회보』, Vol. 32, No. 2 (1998) pp. 149-150.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연구 목표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구성주의의 개체론적 설명에 근본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현상학의 상호주관성 영역의 설명을 빌려오고자 한다.

2. 현상학적 분석방법

1) 후설의 구성적 현상학

(1) 후설의 문제의식

후설(Edmund Husserl)은 1900년대 초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였고 과학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인하며 문명퇴보적인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후설은 유럽 인간성에 근본적인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객관적 사물들과 세계의 현상을 모두 ‘과학적 실증주의’로 환원시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잘못된 연구 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어떠한 기본 가정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태 자체를 직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설의 현상학에 따르면 과학적 실증주의는 물리현상의 사태를 분석할 때에만 적절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연 과학의 내적 구조와 인간의 생활세계의 내적 구조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포함한 인간현상의 모든 분야에 과학적 실증주의를 적용하고 경험 세계를 수학적 집합으로 변형시켜 분석하기 때문에 인간세계가 상실되었고 유럽 학문에 위기가 온 것이다.²⁴⁾ 과학이 탐구하는 물리현상의 본질구조는 자연적 인과성이기 때문에 물리학은 자연적 인과성의 관점에서 물리현상을 탐구해야만 자연현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학을

24) 이종관, “과학, 현상학 그리고 세계: 탈 근대적 세계를 향한 현상학적 모색,” 『철학 연구』, Vol. 28, No. 1 (1991) 참조.

배제한 다른 분야는 그 분야의 본질구조에 맞는 관점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후설은 인간을 주체로 삼는 연구에서 인간이 경험세계에서 대상들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대상을 인식하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심리현상은 자연적 인과성을 본질구조로 갖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을 본질구조로 갖기 때문에 지향성의 관점에서 심리현상을 탐구해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⁵⁾

(2) 현상학의 핵심개념설명: 지향성, 구성작용, 지평

“지향성”이란 개념은 후설의 현상학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인간 의식의 본질적 성격이 지향성이다. 즉 인간의 의식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항상 지향하고 있다.²⁶⁾ 지향하지 않는 의식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지향성은 단순히 사태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후설은 지향성이 단순히 사태를 인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식된 사태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를 종합하는 “구성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²⁷⁾ 즉 우리 의식은 대상을 지향하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와 함께 새로운 의미들을 더해가

25)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 62.

26) 이러한 의식의 지향적 성격에 대해서 후설은 ‘노에시스-노에마적 상관관계’라고 설명한다. 의식이 지향하는 외부적 대상을 노에마라고하고 의식이 노에마를 늘 향하고 있는 지향적 성격을 노에시스라고 한다.

27) 이남인, 2004. pp. 70-78. 참조. 후설의 현상학은 내용의 이질성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후설의 현상학은 과학적 실증주의가 모든 인간현상을 분석하고 모든 학문분야에서 절대적 진리로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태를 분석함에 있어 모든 선입견을 판단중지하고 사태 자체를 직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적현상학’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후기후설은 의식 바깥에 존재하는 사태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러한 외부적 사태들에 대해서 인간의식이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하며 새로운 의미로 종합해가는 의미의 구성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발생적 현상학’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남인은 그의 책 『현상학과 해석학』 (2004)에서 발생적 현상학이 의식의 구성작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적 현상학’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종합적인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구성작용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태를 지향하고 의미를 구성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의식의 “지평”이다. 이남인은 현상학과 해석학에서 주사위의 사례를 들어 지평개념을 설명한다.²⁸⁾ 우리 앞에 주사위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노란색의 주사위라고 경험할 수 있다. 주사위가 ‘노란색의 주사위’라는 의미로 파악된 이유는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색을 매개로 하여 주사위의 의미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사물의 지평이란 바로 그 사물을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물들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의 터이다. 이 주사위를 ‘색’이라는 의미연관으로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란색으로 해석했다면 바로 ‘색의 지평’속에서 주사위를 해석한 것이고, ‘모양’이라는 의미연관을 통해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육면체로 해석했다면 바로 ‘모양의 지평’속에서 주사위를 해석한 것이 된다.

한 사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지평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지평은 다양한 사물들과의 의미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며 한 사물은 다양한 유형의 지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가 구성될 수 있다. 지평은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의미기반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미구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의미구성의 한계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한 주체의 시야의 한계를 의미한다.²⁹⁾ 이와 마찬가지로 현상학적 지평의 개념도 의미구성의 기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의미구성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미구성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의미구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지평이 우리가 사물의 의미를 구성할 때 영향을 주게 되며 그 지평을 통해 구성된 사물의 의미는 주체의 지각작용이 계속 더해질수록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형성해간다.

28) 이남인, 2004. pp. 298-304. 참조.

29) 이남인, 2004. p. 303.

2) 후설의 상호주관성 이론

후설은 인간의식의 본질적 성격은 지향성이며 의식 앞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해서 의식은 지향작용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있어 의미의 터로 작용하는 지평 또한 후설 현상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후설은 인간의 의식 앞에 나타나는 지향적 대상 중에서 ‘타자’는 다른 대상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내가 대상을 지향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타자도 의식이 없는 다른 대상들과는 달리 나와 동일한 의식적 존재라는 점이 사물들과 구별되는 점이었다. 의식적 존재로서 타자는 나에게 다른 여타의 사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향될 수 없는 것이었다.

타자는 나에게 있어 나와 동일한 의식적 존재라는 점과 더불어 또 다른 독특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것은 바로 자아가 스스로를 세계 속의 대상적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서 타자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후설에 따르면 자아가 자신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수행된다. 나의 의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신체는 대상들처럼 우리 신체 외부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우리 신체는 대상에 대한 의식의 지향작용을 일으키는 원점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처럼 스스로를 대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타자의 신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타자를 통해 자아를 스스로 대상화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아는 자신이 의식을 가지고 대상을 지향하는 의식적 존재라는 점을 알고 있다. (2) 타자의 신체가 자아 앞에 대상적 존재로 나타날 때 자아는 타자와 자아가 신체적 유사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 타자의 신체가 자아에게 대상적 존재로 나타났듯이 자아도 타자에게 동일하게 대상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추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³⁰⁾

30) 이남인, “발생적 현상학과 상호주관성 문제,” 『철학사상』, Vol. 16, No.- (2003) p. 38.

바로 이처럼 자아는 자신을 세계 속에 대상화시키기 위해서 타자를 “속명적으로 경험해야 한다.”³¹⁾

이처럼 후설은 타자와 다른 사물들이 의식적 존재라는 기준에 따라 구별된다는 점과 자아가 타자를 인식할 때 의식적 존재로서 다른 사물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타자를 통해 자아가 스스로를 대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후설의 상호주관성이론이라고 한다. 후설의 상호주관성이론은 사회학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의 내용에서는 미드의 논의 중 자아가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역할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미드의 자아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후설의 상호주관성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에 큰 함의를 얻을 수 있다.

3) 미드의 자아개념

후설이 자아와 타자의 상호주관성에 대해서 철학적 정초를 수행했다면, 미드(George H. Mead)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아개념을 설명했다. 미드의 자아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후설의 상호주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국제정치학에도 좀 더 구체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미드에게 자아는 타자와 동떨어진 개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자아는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으로만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등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스스로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을 관점을 자기 내면 속으로 끌어들인다. 인간은 성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자아는 타자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그 관점을 통해 세계를 보게 된다.³²⁾ 미드는 이처럼 자아가 가지고 있는

31) 이종관, 1991. p. 221.

32) George H. Mead, 나은영 역, 『정신·자아·사회: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파주: 한길사, 2010), p. 191.

성찰적 능력을 통해 타자의 관점과 태도를 수용하게 되고, 이러한 타자와 자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고 이러한 자아는 다시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한다.³³⁾

미드는 자아를 'I'와 'me'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I는 사회성이 없는 개인의 충동적이고 비사회적인 자아인 반면 me는 사회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시켜 형성된 객관적 자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와 내면의 성찰과정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게 된다.

4) 현상학적 중견국론

앞서 중견국의 외교정책을 연구함에 있어 국가의 물질적 국력이나 외교행태와 같은 국가의 내부적 속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견국이 가진 국가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국가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은 국가정체성이 국가이익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외교정책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지만 국가정체성 그 자체의 형성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현상학적 시각을 통해 국가가 중견국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본다는 것은 앞서 논의한 후설의 상호주관성이론이나 미드의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처럼 국가가 국제정치라는 세계의 장 속에서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자들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파악하고 'me'라는 객관화된 자아, 즉 대타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가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도 정부의 관료들이나 국민들과 같은 국내적인 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도 함께 영향을 준 것이다. 캐나다는 주관적으로 형성된 자아에서 머물지 않았다. 세계에 대

33) Mead, 2010, p. 219.

해서 행동하였고,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조직해 나갔다. 즉, 캐나다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낸 주관적 자아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험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인식하는 캐나다의 모습이 경험되면서 캐나다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깨닫고 주관적 자아에 반영되고 변형되는 성찰과정을 통해 대타아적 자아로서 ‘중견국’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 국가가 사회 내에서 타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알아보고, 특히 캐나다의 중견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형성의 연속적인 과정을 분절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인식, 타자경험, 지평형성, 대타자아형성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임의로 구분함으로써 캐나다가 중견국으로 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인식

후설에 따르면 자아가 타자를 이해할 때는 자아와 타자가 함께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이해가 수행된다. 주체는 타자를 이해할 때 늘 어떠한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타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즉 주체가 서 있는 세계의 성격이 반영되어 타자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를 통해 형성된 대타자아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아와 타자가 서 있는 세계,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주체가 세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아가 해석의 토대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타자경험과 자아규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고 국제연합의 창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1940년대 초, 중반을 기준시점으로 그

34) 이남인, 2003. pp. 35-42.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캐나다가 처해있던 상황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세계전쟁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보와 평화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된 시기였고, 특히 캐나다와 심정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던 영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미국이 연합국의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가 세계정치의 장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타자경험과 자기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타자경험

후설의 상호주관성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자아는 스스로를 세계 속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인 타자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타자의 태도를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타자의 관점을 성찰하고 그를 통해 타자의 관점을 자기내면화 시키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성찰적 과정을 통해서 주관적인 자기규정이 아닌 대타적인 자기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캐나다는 1763년부터 영국의 식민지국이 되었고, 사실상 법적으로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국이 된 것은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서였다. 그 전까지는 독립국으로서 다른 국가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외교권이 없었고, 1931년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는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적, 군사적 국력을 쌓을 수 있었고 1940년대 초반 증가한 국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강대국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영국의 자치령으로서 뚜렷하게 국제사회 내에서 캐나다만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역량도 없었다. 하지만 1940년대부터는 캐나다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대한 의지를 통해 다른 강대국들과의 활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겪었던 타자경험이 중견국이라는 대타적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3) 지평형성

앞선 논의에서 현상학의 지평개념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평이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해석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의미의 구성 작용에 영향을 주는 의미구성의 기반이다. 주체는 자아와 타자가 서 있는 세계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또한 타자에 대해서도 의미를 구성한다. 바로 세계와 타자를 이해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모든 과정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는 의미형성의 기반으로서 지평이 작용하는 것이다.

캐나다가 자국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캐나다가 처해 있는 국제체제의 성격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였고, 그 체제 안에서 캐나다가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미를 규정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졌다. 세계의 성격과 타자들과의 관계의 의미가 캐나다의 관료들이 갖고 있던 지평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관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지평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대타자아형성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 내부적인 역사나 정치상황,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국제정치가 시작되었고, 세계정치의 무대가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확대 된 만큼 국가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는 오래 된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외교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웨스트민스터 헌정을 통해 독립적 외교권을 갖게 된 캐나다는 다양한 국제경험을 겪으면서 세계 속의 캐나다가 어떠한 위상에 있는지 서서히 깨달을 수 있었다. 영연방 속에서 캐나다의 위상을 파악하고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친 캐나다의 위상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교류 속에서 캐나다는 대타자적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점점 형성해나가기 시작했다

고,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Ⅲ. 캐나다의 타자경험 1942-1943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전후 국제질서의 재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고 1941년 말, 1942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제구호(international relief)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강대국들은 전후 국제정치를 안정시키고 세계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대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였다.³⁵⁾ 이와 달리 캐나다는 1941년까지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고 국내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는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사안은 전후 유럽국가에 대한 구호와 국가 재건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종전 후에 세계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 정상들의 모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캐나다에게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강대국들과 함께 핵심적인 국가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외교적 사안이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까지 캐나다는 영연방의 회원국이라는 점과 미국과 이웃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캐나다는 더 이상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었고, 미국과 영국은 일대일 양자회담을 더 빈번하게 갖게 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연합국의 주축국으로서 원활한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국의 연합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 더하여 국제구호를 위해 소련과 중국을 포함하여 국제구호기구를 창설하였지만 캐나다는 그 어떤 연합기구에도 강대국과 동등한 지위로서 참여할 수 없었다.

이 장에서는 1942년과 1943에 일어났던 다양한 국가들의 모임 중

35) Adam Chapnick, *Middle Power Project: Canada and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Vancouver: UBC Press, 2005), p. 25.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지위를 깨닫게 되고 대타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몇 가지 중요한 국제적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캐나다가 국제경험을 통해 어떻게 인식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4명의 핵심관료를 선정하여 이들의 인식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캐나다가 국가정체성과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서 캐나다 수상(Prime Minister)이었던 메켄지 킹(Mackenzie King), 외교부 차관(Under-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이었던 노먼 로버트슨(Norman Robertson), 외교부 부차관(Assistant Under-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이었던 휴 롱(Hume Wrong), 그리고 워싱턴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근무하던 레스터 피어슨(Lester Pearson)을 선택하였고, 이들의 인식변화를 ‘세계이해’, ‘타자경험’, ‘지평변화’라는 현상학적인 내용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캐나다 외교정책의 변화 1942-1943

1) 캐나다의 고립주의 정책

캐나다의 외교정책은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고립주의 정책을 고수하였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세계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캐나다는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외교정책의 제일의 목표는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여 실질적인 독립국가가 되는 것, 영국의 식민지국가로서가 아닌 독립국으로서 미국과 양자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세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³⁶⁾ 영연방에 속하여 영국의 준 식민지적 위치에 있

36) Tom Keating, *Canada and the world order: The Multilateralist Tradition in Canadian foreign policy*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6.

던 캐나다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선택의 여지없이 영국을 따라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캐나다는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고, 1917년 국내적으로 징병제도에 대한 논쟁이 불거져 전 국민적 반발로 인해 많은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은 캐나다로 하여금 더 이상의 국제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갖게 해 주었다.

캐나다가 191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가입했던 것은 1940년대 국제연합에 참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캐나다는 국제연맹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적 주권국으로 인정받고자 했고, 그럼으로써 발발하는 전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독립적 선택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³⁷⁾ 이러한 캐나다의 고립주의적 성격은 당시의 수상(Prime Minister)이었던 메켄지 킹과 외교부 차관(under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이었던 스킨톤(Oscar D. Skelton)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였다.

메켄지 킹은 캐나다의 10대 총리로서 1921년~1926년, 1926년~1930년, 1935년~1948년 3번에 걸쳐 총리를 역임한 자유당 출신의 정치가이다. 킹은 캐나다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기간과 1945년 유엔이 창설되던 기간에 수상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 시기를 통해 캐나다는 1940년대 유엔의 창설과정에서 중견국으로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만큼 킹수상은 캐나다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킹은 재임기간동안 비교적 일관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즉, 국제문제에 대해 깊게 관여하고자 하지 않았고, 국내적인 화합에 더 비중을 두는 태도를 유지하였다.³⁸⁾ 이러한 태도는 1945년 유엔이 창설될 때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1942년 로버트슨과 룡의 지위 하에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로버트슨의 전임자였던 스킨톤과 함께 고립주의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로버트슨이 스킨톤의 후계자가 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킹이 스킨톤의 뒤를 이

37) Keating, 2002, p. 7.

38) Chapnick, 2005, pp. 7-8.

을 사람으로 로버트슨을 추천한 이유도 로버트슨과 함께 국무장관의 후보로 유력했던 롱이나 피어슨 보다는 좀 더 온화하고 비교적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1945년 유엔창설을 위한 최종 국제적 합의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캐나다의 대표단을 보내야 할 때에도 킹은 최대한 소극적이고 온화하여 캐나다가 국제문제에 소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대표단을 선발하려고 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재임 기간 내내 국제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킹이 외교정책과 국제문제 관여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했던 것은 아니다. 1942년 이후 캐나다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국제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도록 하며 캐나다가 더 이상의 부담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돌리고자 했던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인해 킹에게 국제문제 개입은 곧 국내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1946년에 로랜트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외교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계속 유지되었다.³⁹⁾

스켈톤은 1925년부터 캐나다의 외교부 차관(Under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로 활동한 정치가로서 전쟁기간 동안 킹수상의 가장 신임 받는 정치적 동료이기도 했다. 역사가들과 정치학자들로부터 1941년 스켈톤의 죽음으로 인해 캐나다의 외교정책의 방향이 변화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스켈톤의 독립주의적 정책은 1940년까지 캐나다의 외교 원칙이었다. 스켈톤은 킹수상과 함께 전쟁기간동안 독립주의 정책을 추구하였고 캐나다가 국제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에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캐나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국에 따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국가의 희생이 불가피했던 강렬한 기억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30년대 후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시작했을 때 스켈톤이 독립주의를 강하게 표방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⁴⁰⁾

39) John W. Holmes, "Canadian External Policies since 1945," *International Journal*, Vol. 18, No. 2 (Spring 1963), p. 137.

40) Paul Gecelovsky, "Constructing a middle power: Ideas and Canadian

2)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의 변화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1939년 영국과 미국은 이미 새로운 국제기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43년도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짓고 있었는데 반해 캐나다 정부는 1942년 전까지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전후 국제정치의 질서 재건에 대해 고민할 의지도 없었고 그럴만한 국가역량도 부족했다.⁴¹⁾ 하지만 국제정치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무관심은 1942년 7월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1943년부터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정부, 여론,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⁴²⁾

캐나다는 두 가지 새로운 사건으로 인해 정책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두 가지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외교부 차관이었던 ‘스켈톤(O.K. Skelton)의 죽음’이었다. 실제로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했던 스켈톤의 죽음과 그에 따른 후계자를 선정하던 시점이 캐나다의 향후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었다.⁴³⁾

스켈톤을 이을 후임자의 후보로는 롱과 피어슨, 그리고 로버트슨이 있었다. 외교부에 적합한 인물들에게는 수많은 국제경험과 오랜 국내정치

foreign policy,” *Canadian Foreign Policy Journal*, Vol. 15, No. 1 (Mar 2011), p. 84.; J.L. Granatstein, *The Ottawa Men: The Civil Service Mandarins 1935-1957*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8), pp. 28-44.

41) Chapnick, 2005, p. 14.

42) Holmes, 1963, p. 138.

43) 제세로브스키(Paul Gecelovsky)는 자신의 논문에서 하나의 새로운 정책적 이념이 한 국가의 외교정책에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3가지의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Emergence), 새로운 아이디어의 채택(Adoption),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Embedment)이다. 그 중 첫 번째 단계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Emergence)인데 이 단계에서는 전쟁, 기근, 일시적 불경기, 경제공황, 정치 관료의 리더십의 변화 등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기존의 정책에 의문을 갖게 되고 비로소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캐나다의 정책에 변화를 주었던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스켈톤의 죽음이다. Gecelovsky, 2011. 참조.

의 경력 등이 중요한 자질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후보 중 가장 어린 로버트슨보다는 정치 경력이 오래 되었고 영국과 미국 등 해외에 오래 거주했던 롱과 피어슨이 스켈톤의 후임자로 가장 적합했다. 롱과 피어슨에 비해 로버트슨은 비교적 젊었고 1차 대전의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킹수상은 스켈톤의 후임자로 로버트슨을 선택하였다. 국제문제에 개입되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킹의 성격 때문에 오히려 젊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로버트슨을 차관으로 지정하였다.⁴⁴⁾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계산이었다. 킹의 예상과는 반대로 로버트슨은 오히려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1914년의 경험에서처럼 영국과의 관계로 인해 전쟁을 포함한 국제문제에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캐나다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스켈톤과는 다르게 로버트슨은 캐나다국제문제연구소(Canad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IIA)와 같은 비정부기관과도 지속적인 연계를 맺고 외교정책에 대한 조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캐나다가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는데 기여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미래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창설에서 캐나다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⁴⁵⁾

이처럼 캐나다는 1942년부터 서서히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42년에 캐나다 외교부는 로버트슨 차관을 중심으로 외교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정부, 비정부기관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캐나다의 국가이익을 결정할 외교이념을 수립하는데 집중했다. 1942년 7월에는 오랫동안 진행되던 캐나다 국내의 징병제에 대한 첨예한 논의가 종결되면서 킹수상도 외교문제에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로버트슨은 두 명의 능력 있는 관료인 롱과 피어슨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만의 외교이념을 형성해 갔고,

44) John Hilliker, *Canada's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vol. 1, The Early Years*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0), pp. 239-240.

45) Chapnick, 2005, p. 21.

이 핵심적인 3명의 관료들은 킹수상을 포함하여 외교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부관료들에게도 하나의 통일된 이념을 설득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⁴⁶⁾

2. 외교적 사건과 타자경험의 계기들

1941년 12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강대국 정상들과 고위급 관료들의 모임이 확대되었다. 1942년에 미국과 영국은 연합국의 전쟁수행과 전후 국제구호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합위원회(Combined Boards)를 구성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등의 다른 강대국들도 포함하여 전후 평화유지와 국제구호를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비모임들이 진행되었다.

캐나다는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2차 대전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었고, 1942년부터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모임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캐나다는 2차 대전으로 인해 전쟁 물자를 생산하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들의 국가적 자신감이 높아졌고, 이러한 배경 위에서 캐나다 정치관료들도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비교적 강대국과 가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기구에서 캐나다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국제기구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정해진 상태였다. 1942년과 1943년은 캐나다가 본격적으로 강대국들에게 냉대와 멸시를 경험하면서 존재의 좌절을 겪는 시기였다. 이 장에서는 1942년에서 1943년에 걸친 시기동안 있었던 캐나다와 강대국들과의 일련의 경험 중에서 캐나다 관료들의 인식에 큰 변화와 깨달음을 주었던 사건 4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6) J. L. Granatstein, *The Ottawa Men: The Civil Service Mandarins 1935-1957*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128.

1) 1941년 8월 뉴펀들랜드 회담(Newfoundland Conference)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4개월 전인 1941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 총리 처칠은 대서양 해상에 위치한 뉴펀들랜드(Newfoundland)의 플라센티아만(Placentia Bay)에 정박해 있던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전쟁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앞으로 평화적 질서를 세우고 세계질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국가가 참여하는 세계기구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8월 14일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을 발표했다. 이 회담을 통해 미래의 국제질서에 대한 양국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또한 대서양 헌장은 후에 1942년 1월 1일 국제연합선언문(Declaration by the United Nations)의 기초가 되었고 1945년에 창설된 국제연합의 이념적 기초가 된 만큼 이 회담의 의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두 정상의 만남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동안 캐나다는 미국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었고 영국과는 영연방으로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캐나다 정부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뉴펀들랜드는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캐나다 지역에서 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캐나다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큰 존재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1942년 1월 워싱턴 회담(Washington Conference)

1941년 8월 영·미 정상회담을 통해 캐나다 정부와 킹수상이 겪은 약소국으로서의 존재자각과 좌절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1942년 1월에는 아카디아 회담(Arcadia Conference)이 있었고, 이 회담에서 또 한 번 캐나다는 배제되는 모욕을 겪었다. 아카디아⁴⁷⁾ 회담은 공식적으로는 제 1차 워싱턴 회담(First Washington Conference)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1941년 12월 22일부터 1942년 1월 14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⁴⁸⁾ 이 회의에는 영국의 수상과 미국의 대통령은 물론 각 국의 군사관련 지도자들도 참석하여 전쟁에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담으로 여러 가지 전쟁수행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42년 1월 1일에는 26개의 국가들이 모여 1941년 8월 처칠수상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대서양 헌장의 내용을 따르는 국제연합선언문(Declaration by the United Nations)을 발표하였다.

1941년 12월에 킹과 캐나다의 군사관련 관료들도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었다. 캐나다의 대표들은 처칠과 루즈벨트와 함께 3개국의 회담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미·영 국가 대표가 참석하여 표면상으로만 회담이 진행된 것일 뿐이었고, 캐나다 대표들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하나도 공유하지 않았다. 킹수상은 3국 정상회담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정상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으며 국제연합선언문도 워싱턴에 머물고 있던 영국 대사로부터 짧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캐나다 지도자가 미국, 영국 지도자와 함께 회담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캐나다가 배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형식적인 회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험과 국제연합선언문에 캐나다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었다는 경험 등은 캐나다가 강대국과의 거리보다는 약소국과 거리가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든 사건들이었다.

47) ARCADIA는 회담을 일컫는 코드네임(code name)으로 사용된 단어이다.

48) 1942년 1월 1일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의 4강대국을 포함하여 26개의 국가들이 워싱턴에 모였다. 이들은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의해 작성된 선언문 초안에 합의함으로써 연합국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주축국에 대항하여 상호 협력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약속하고, '연합국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by the United Nations)'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은 1941년 8월에 영국 수장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 전쟁의 목적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담은 '대서양 헌장'의 내용을 재확인 하는 것이었으며, 후에 1943년 11월에 만들어진 국제연합 구제부흥사업국(UNRRA,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설립의 이념으로 이어져, 1945년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이 창설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연합위원회(Combined Committees)

1942년 1월 26일 루즈벨트와 처칠은 워싱턴 회담에서는 국제연합선언문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 원활하게 군사전략을 구상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합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 중에는 음식이나 군수품의 생산과 운송을 담당하는 위원회도 있었고 연합국의 전쟁전략을 형성하고 지휘하기 위한 최고연합위원회(Combined Chiefs of Staff Committee)도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과 미국의 모든 군사전략의 최종결정을 내리는 최고연합위원회였고, 군수품이나 원료(raw materials)와 같이 전쟁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3가지 부위원회(subordinate boards)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다.⁴⁹⁾

사실상 캐나다는 영국과 미국 못지않게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영국에게는 직접 현금으로 재정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위원회에 캐나다도 참여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캐나다 정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이 합의하여 연합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오타와정부가 직접적으로 캐나다의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워싱턴 주재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캐나다의 참여의사를 설득했지만 영미연합국이 어떻게 캐나다에서 생산된 전쟁물자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식량을 조달하는 주요 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도 특히 식량조달위원회에 캐나다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었고, 지속적인 캐나다 정부의 요청과 설득에 따라 1942년 11월에 식량조달위원회의 참여권을 겨우 얻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⁵⁰⁾

49) 1942년 1월 26일에는 전쟁원료조달위원회(Combined Raw Materials Board)가 만들어졌고, 1942년 6월 9일에는 추가적으로 전쟁물자생산위원회(Combined Production and Resources Board)와 식량조달위원회(Combined Food Board)가 만들어졌다.

50) A. J. Miller, "The Functional Principle in Canada's External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Vol. 35, No. 2 (Spring 1980), p. 315.

4) UNRRA의 창설

국제연합구제부흥사업국(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이하 UNRRA)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전후 구호와 구제를 위해 미국 주도하에 44개국이 참여하여 1943년 11월 9일 창설된 국제구호기구이다. UNRRA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1943년 6월에 제안하였고, 11월 백악관에서 44개국 대표들의 합의로 창설되었으며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되면서 국제연합의 산하기구에 속하게 되었다. UNRRA에 참여한 국가들은 유럽구호에 필요한 식량, 원료, 원자재 등을 원조하였다. UNRRA의 주요 정책 사안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대표로 참여하였다.⁵¹⁾

당시 캐나다는 중앙위원회에 소속된 4개국 중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돈을 내는 국가였다.⁵²⁾ 캐나다는 재정적으로 전후 유럽대륙의 구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UNRRA의 중앙위원회에 참

51) UNRRA의 창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Woodbridge, *UNRRA: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Vol. 1*,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50), Part 1, pp. 3-32.; Susan Armstrong-Reid, David Murray, *Armies of Peace: Canada and the Unrra Years*, (Toronto: University of Tronto Press, 2008), chapter 1.

52) <표 2-1> UNRRA에 기부한 국가 중 상위 5개국의 기금액(단위: 달러)

국가	상품 (commodities), 서비스(services), commitments	Convertible currency	Non-Convertible currency	총액
총회원국	3,062,098,113	317,872,393	280,977,948	3,660,948,455
미국	2,340,935,948	225,270,446	102,063,055	2,668,269,449
영국	430,176,299	45,885,100	168,308,820	617,370,219
캐나다	123,483,021	138,73,874	1,381,844	138,738,739
호주	73,740,551	-	3,059,449	76,800,000
브라질	-	153,500	-	153,000

주: 기금액은 미국달러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이며 UNRRA운영의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기금액임.

출처: 필자가 참고한 표의 출처는 Susan Armstrong-Reid, David Murray, 2008, p.375. 이며 원본출처는 Woodbridge, 1950.이다.

여할 권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소련은 캐나다가 중앙위원회의 참여국 권리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UNRRA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위원회의 참여국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고, 소련의 반대와 소련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캐나다는 결국 중앙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⁵³⁾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UNRRA에서 다른 약소국들과는 구별되는 권리를 줄 것을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다. 미국 워싱턴에 캐나다 대사로 있던 피어슨은 캐나다의 대표권에 대한 강대국의 반대의사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관료들에게 UNRRA에서 중앙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가 물자조달에 관해서는 높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자조달 위원회의 의장국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타협할 것을 설득했다. 또한 중앙위원회의 권리를 요구하는 캐나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영국의 외교부장관인 이든(Anthony Eden)이 1943년 3월 오타와를 방문했고, 캐나다의 킹수상은 물자조달위원회의 참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지만 자유당에 대한 국내여론을 의식하면서 UNRRA의 사안에 대해 물자조달위원회의 의장국의 대표권을 얻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⁵⁴⁾

3. 캐나다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변화

1) 매켄지 킹(Mackenzie King)

캐나다의 수상 킹은 1940년 4월부터 1941년 4월까지 12개월간 루즈벨트와 3번의 회담을 가졌고, 이 회담을 통해 킹과 루즈벨트는 꽤 포괄

53) Chapnick, 2005, p. 31; Robertson to King, 18 January 1943, in Published Documents, Department on Canadian External Relations(이후 DCER), vol. 9, 1942-1943, John F. Hilliker ed., (Ottawa: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 1980), pp. 773-774.

54) J. L. Granatstein, *Canada's War: The Politics of the Mackenzie King Government 1939-1945*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0), pp. 300-307.

적인 논의들을 나누었다. 또한 킹은 미국의 육군장관(Secretary of War),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재무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 등 고위급 관료들과 잦은 만남을 가지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킹은 오래 전부터 영국과의 관계에서 캐나다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영국과 연방 국가들의 정상회담에도 캐나다의 독립성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로 참석하지 않았다. 킹은 캐나다를 영연방에 속한 국가가 아니라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킹은 영국보다 미국과 심정적으로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⁵⁵⁾

킹과 루즈벨트와의 관계는 사실상 미국이 전쟁참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변하였다. 미국과의 독립적 주권국으로서의 연대적 관계는 1941년 8월 처칠과 루즈벨트의 회담을 통해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1941년 8월 6일 영국 관료 하우(C. D. Howe)의 연락으로 킹수상은 처칠 수장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펀들랜드(Newfoundland) 아르젠티아(Argentia)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킹수상은 그 동안 여러 회담과 조약 등을 통해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영국과는 영연방으로서 영국을 따라 2차 대전에 참전하는 등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그 동안은 영·미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뉴펀들랜드의 회담에서 배제된 것을 알고 킹수상은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다.⁵⁶⁾

미국과 영국 정상의 회담이 끝나고 처칠수상이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 킹수상은 자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8월 19일 처칠수상을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갔다. 킹은 영국의 배려로 전시내각(War Cabinet)에 참석했지만 킹은 전쟁전략에 관한 중요한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칠과의 사적 대화에서도 아무런

55) Donald Creighton, *The Forked Road: Canada, 1939-1957*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1976), pp. 56-57.

56) J. W. Pickersgill, *The Mackenzie King Record, Vol. 1, 1939-1944*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0), pp. 233-235.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킹의 런던방문은 캐나다가 강대국들의 미래 전략의 논의에서 캐나다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해 줄 뿐이었다.⁵⁷⁾

킹은 1941년 8월에 이어 1942년 1월에 있었던 아카디아 회담에서도 영·미 정상들에게 배제되었다. 비록 킹수상은 두 정상들과 함께 미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논의사안에 대해서는 영·미 두 정상이 모여 결정했기 때문이다. 킹은 이 미팅에서 루즈벨트와 처칠이 시간만 채우고 있을 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 국가가 은밀하게 캐나다를 배제하고 논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⁵⁸⁾ 킹은 처칠수상과 함께 오타와로 돌아와 두 국가만의 대화를 진행했지만 이 또한 아무 수확이 없는 무의미한 시간일 뿐이었다. 킹이 오타와로 돌아와 전시 위원회(War Committee)에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워싱턴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영국 대사가 킹에게 짧게 보여주었던 문서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 또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문서는 바로 ‘국제연합선언’이라고 알려진 아주 중요한 문서였다.

이러한 경험들에 더하여 선언문에 서명한 국가들이 서류상에 나열된 순서는 킹에게 더욱 모욕을 주었다. 선언문에 사인한 28개 국가들은 알파벳순에 따라 나열되지 않았다. 국가들의 이름은 2개의 범주로 나뉘어 각 범주 안에서 알파벳순에 따라 나열되었는데 첫 번째 군은 강대국으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었고, 두 번째 군은 캐나다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이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었다. 이러한 범주 구분은 캐나다가 강대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대국들의 인식, 특히 미국의 인식에는 캐나다가 다른 약소국들과 전혀 구별되는 국가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⁹⁾

2) 노먼 로버트슨(Norman Robertson)

57) Creighton, 1976, pp. 59-60.

58) Creighton, 1976, p. 65. Pickersgill, 1960, p. 317.

59) Creighton, 1976, p. 65.

1941년 1월 외교부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이었던 스킨톤이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로 로버트슨이 임명되었다. 로버트슨이 임용된 직후에는 국외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징병제도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또한 로버트슨은 다른 정부관료들에 비해 젊은 편이었다.⁶⁰⁾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상황과 함께 그의 짧은 경력에 대한 다른 관료들의 불신임 때문에 로버트슨은 그를 도울 새로운 제작진을 고용할 수 없는 등 자신의 의지대로 외교부를 재편성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로버트슨은 1941년 가을부터 캐나다 외교 부서를 새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와 친분관계에 있는 학계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략 2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외교부서에 합류하여 캐나다 외교관계의 향상을 위한 전략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⁶¹⁾

60) 1941년 당시 워싱턴 대사로 있었고 1942년도에 오타와 정부에 합류하여 로버트슨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룡의 나이는 47세였고, 오타와 정부에 함께 있던 피어슨의 나이는 44세였다. 피어슨과 룡은 로버트슨과 함께 스킨톤의 후계자의 후보로 이름이 올랐던 인물들이었다. Chapnick, 2005. 참조.

61) 캐나다 정부에 합류한 학계 인사들 중 대표적으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정치학과 경제학 교수였던 앵거스(Henry Angus)와 토론토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였던 글레이즈브룩(George Glazebrook)이 있었다. 글레이즈브룩은 CIIA의 연구 위원회를 설립한 사람이었고,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캐나다가 나아가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던 인물이었다. 앵거스 또한 CIIA의 회원이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로버트슨이 외교전략을 형성하는데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20여명의 학계인사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CIIA와 연계되어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슨의 인식에는 이들 CIIA의 전략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할 수 있다.

CIIA의 공식명칭은 캐나다 국제문제 연구소(Canad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IIA)로서 1928년에 창설되었고 캐나다의 외교문제를 연구하는 비정부기관이다. 캐나다 정부가 외교문제에 대한 뚜렷한 전략을 형성하지 않았던 시기부터 CIIA에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캐나다가 취해야 할 외교전략을 연구하고 있었고 캐나다 전국에 걸쳐 지부를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학계인사들이 CIIA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1939년까지는 외교부와 공식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만 맺어오다가 1939년 이후부터는 CIIA 회원들이 외교부의 핵심인사로 고용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외교부에서 활약하던 리드(Escott Reid)는 CIIA의 national secretary였던 인물로 1938년부터 외교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CIIA는 학계의 핵심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1939년부터 활발하게 외교부와 교류

로버트슨은 1942년 8월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위한 예비단계인 UNRRA를 형성하는데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전략 3가지를 제시하였다. 로버트슨이 제시한 3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는 강대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국제적 사안에 대하여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약소국들과는 다른 종류의 중간국가들로 구성된 그룹(*medium belligerents*)⁶²⁾을 만들 수 있다. 셋째, 기능이론(*functional principle*)⁶³⁾에 따라서 캐나다는 강대국들에게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캐나다만의 독특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⁶⁴⁾

로버트슨이 제시한 3가지 외교전략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표면상으로는 캐나다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외교전략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어디에 캐나다를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로버트슨이 고민이 담겨있다. 첫 번째 전략은 1942년 당시 캐나다의 높은 국력과 그에 따른 국내적 자신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캐나다 정부 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었다. 1942년에는 2차 대전을 통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영연방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미국과도 지리적으로 근접했고 1940년, 1941년에 일련의 군사적, 경제적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략적 이해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은 캐나다가 영국, 미국과 함께 강대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의 내용을 통해 로버트슨은 국제사회를 단순

함으로써 학계와 정부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F.H. Soward, "Inside a Canadian Triangle: The University, the CIIA, and the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a Personal Record," *International Journal* Vol. 33, No. 1 (Winter 1977-78), pp. 66-87.; H.L. Keenleyside, "Canada's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International Journal* Vol. 1, No. 3. (July 1945), pp.189-214. 참조.

62) 로버트슨은 *medium belligerents*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belligerents*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만한 국력을 갖지 못한 약소국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참전'을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3) 캐나다의 외교이념이었던 기능이론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 2절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64) Chapnick, 2005, p. 27.

히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를 강대국과 약소국으로만 나누게 될 경우 1941년까지의 캐나다는 스스로를 미국, 영국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대국의 위치에 둘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미 1941년 8월에 영국과 미국 정상들의 양자회담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1942년 1월 1일 발표된 연합국 선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초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서 자국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전략이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로버트슨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다른 종류의 국가그룹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캐나다가 강대국에는 속할 수 없지만 ‘중간국가들로 구성된 그룹(a group of medium belligeren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할만한 국력이 부족해서 참전할 수 없었던 다른 약소국들과는 구별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는 영국의 동맹국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여 경제력, 군사력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캐나다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약소국들과는 확실히 구별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로버트슨이 국제사회를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조로 인지하지 않고 좀 더 세분화된 형태로 국가그룹을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로버트슨이 작성한 문서내용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제연합선언문이 발표되기 3일 전까지 초안을 확인할 수 없었던 로버트슨이 1월 1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제연합선언문을 보고서 캐나다 킹수상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이다.

연합선언문의 전문에서 국가를 강대국(great powers)과 약소국(small powers)으로 분리시킨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며 이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고전적인 배열방식은 알파벳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변경은 문제를 유발하며 차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전쟁에 대한 잠재적 국력이 있는가 하는 기준에서 볼 때 중국이 캐나다나 네덜란드, 인도와 같은 국가보다 더 상위의 카테고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⁶⁵⁾

선언문에 사인한 28개 국가들은 알파벳순서에 따라 나열되지 않았다. 국가들의 이름은 2개의 범주로 나뉘어 각 범주 안에서 알파벳순에 따라 나열되었는데 첫 번째 군은 강대국으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었고, 두 번째 군은 캐나다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이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었다. 이러한 범주 구분은 캐나다가 강대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대국들의 인식, 특히 미국의 인식에는 캐나다가 다른 약소국들과 전혀 구별되는 국가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의 로버트슨이 작성한 문서를 통해 볼 때 로버트슨은 강대국처럼 국가를 단순히 강대국과 약소국으로만 나누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전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인도 등의 국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로버트슨의 세 번째 전략은 기능이론에 대한 것으로서 로버트슨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료였던 롱이 처음 제시한 이론이었다. 1942년 7월 롱이 워싱턴 대사관에서 오타와 정부로 옮겨오게 되면서 기능이론은 1943년 이후부터 캐나다의 핵심적인 국가 외교철학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는 1944년부터 전개된 중견국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롱이 오타와 정부로 합류하기 전인 1942년 1월부터 롱은 워싱턴에서 로버트슨에게 캐나다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침을 서면을 통해 꾸준히 제시하였고, 바로 이러한 롱의 기능이론의 내용이 로버트슨의 외교전략에 포함된 것이다. 롱의 기능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3) 흠 롱(Hume Wrong)

캐나다가 1940년대 국제사회에 중요한 정치적 참여자로 등장하면서, UN 창설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캐나다

65) Robertson to King, 29 December 1941,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9, 1942-43, John F. Hilliker ed., 1980, p. 100.

가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인지하면서 캐나다의 실제적인 위상을 인지하고 중견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바로 롱이었다. 롱은 역사학자이자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면서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인정받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킹수상을 비롯하여 오타와 정부관료들이 국내 문제에만 몰두하며 아무도 외교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인 1942년부터 롱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캐나다 대사로서 지내면서 캐나다가 국제사회에 어떤 기준과 국가 철학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다른 정부관료들과 롱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롱이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다.⁶⁶⁾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현실적이고 냉철했지만 캐나다를 위하는 그의 열정은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관료들 못지않게 국가에 대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관료였다.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롱의 성격은 그의 여러 가지 많은 국제적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1940년대 캐나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관료들에 비해 롱은 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1920년대 말에 캐나다 외교부(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미국 워싱턴의 캐나다 대사로서 활동했다. 참전의 경험은 강대국 정치가 불러일으키는 처참한 결과를 몸소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었으며, 현실 국제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또한 1차 대전에 참전한 것은 캐나다의 의도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국으로서 참전한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국으로서의 서러움도 절실히 느끼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롱은 국제연맹이 창설 된 후 캐나다 대표로서 활동하였고, 각종 국제회의에도 참석하면서 국제정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캐나다가 국제연합의 창설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 롱이 제시했던 캐나다 외교전략의 내용을 보면 롱이 과거 국제연맹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국제연맹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을 읽을 수 있다. 즉,

66) Granatstein, 1982, pp. 123-127.

모든 국가가 동등한 권리로 참여하는 국제연맹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는 후에 1943년 이후에 캐나다의 외교전략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넓은 국제경험 속에서 캐나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했던 롱의 생각들은 정부관료로서 활동하기 전인 1919년 3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던 시절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캐나다가 국제연맹의 가입국이 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표하면서, 앞으로 캐나다는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국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국가로서 새로운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⁷⁾

1940년대 초에 워싱턴에서 캐나다 대사로 근무하면서 롱의 현실주의적인 성격은 확고해졌다. 롱은 1942년 7월까지 워싱턴에서 근무하였고 이 시기는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던 캐나다가 약소국의 지위로 떨어지게 되는 시기였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미국이 참전한 전후로 급격하게 변화했다. 롱은 이러한 캐나다 지위의 변화를 워싱턴에서 직접 목격했다. 미국이 중립국으로 있을 때 롱은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방위와 경제 분야에 관한 오그덴즈버그 조약(Ogdensburg Agreement)과 하이드 파크 선언(Hyde Park Declaration)을 1940년과 1941년에 걸쳐 체결하는 데 캐나다의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그덴즈버그 조약과 하이드 파크 선언은 미국과 캐나다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캐나다에게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조약을 통해서 캐나다의 수상을 비롯한 관료들은 독립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고,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과 양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1941년 12월 14일 롱은 일기에서 이전에는 전쟁에 대한 논의에서 캐나다는 영국과 미국과 함께 참여하거나 영국과 미국의

67) Gecelovsky, 2011, p. 84.

연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미국이 참전하면서 영국과 미국은 전쟁이 두 국가 사이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캐나다는 두 국가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위가 되었다고 걱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롱은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는 미국과 영국에게 있어 캐나다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에 있었으나 미국이 영국과 직접적으로 협력을 맺게 되면서 캐나다의 지위는 필수불가결하게 줄어들게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다.⁶⁸⁾

1942년부터 롱이 캐나다의 외교전략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국제경험을 통해 쌓아 온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다. 1942년에는 영국과 미국이 연합국의 대표로서 전쟁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쟁전략의 형성과 전쟁물자의 생산, 운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연합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캐나다가 주력해야 할 국제적 사안은 연합위원회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동등한 대표권을 갖는 것이었다.⁶⁹⁾ 당시 워싱턴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롱은 캐나다가 보여주어야 할 외교전략에 대한 충고를 담은 편지를 1942년 1월 20일 외교부 차관이었던 로버트슨에게 보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는 모든 연합조직체(combined organizations)에서 캐나다가 확보해야하는 대표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또한 캐나다가 영국, 미국과 가까운 동맹관계(colleagues)에 있다는 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캐나다의 지위(status)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주축국들과 전쟁 중에 있는 국가는 26개이고, 이에 더하여 자유 프랑스군(the Free French)도 있습니다. 이들 중 10개 국가(영국, 미국, 소련, 중국, 네덜란드, 인도, 4개의 영연방국)와 자유 프랑스군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체코는 모두 전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참전국들이 Allied war organization에서

68) Granatstein, 1998, pp. 124-127. 참조.

69) A.J. Miller, "The Functional Principle in Canada's External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Vol. 35, No. 2 (Spring 1980), pp. 309-328. pp.314-315. 참조.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이는 마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같아질 것이고 이는 실제로 효력이 없는 비효율적인 조직체가 될 것입니다. (중략)

그렇다면 캐나다는 연합국측이 속한 조직체에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모든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필자 주)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원리는 **각각의 국가는 전쟁에 있어서 기여한 비율에 맞추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국제문제에 대해서 해당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물자의 공급과 관련해서 캐나다는 3위에 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 다음의 순위입니다. 캐나다 파병군의 직접적인 군사적 기여는 아마도 5위나 6위의 순위에 있을 것입니다. (후략)⁷⁰⁾ (강조는 필자)

롱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인식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롱은 국제연합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맹에서 이미 캐나다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며 이상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롱은 연합국들이 새로 만드는 조직체는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국가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롱의 주장대로 모든 국가가 연합조직체에 참여할 수 없다면 문제는 어떤 국가가 얼마만큼의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가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롱은 참전국들이 전쟁에 기여한 비율대로 국제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롱이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바라보

70) Wrong to Robertson, 20 January 1942,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9, 1942-43, John F. Hilliker ed., 1980, pp. 106-107.

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구별 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롱에 따르면 당시 캐나다는 전쟁물자 공급에 있어서 연합국 중 3위였고,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파병군대의 규모에 있어서는 5위나 6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캐나다의 전쟁기여도는 영국과 미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고, 롱의 주장에 따라 캐나다는 대표권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했다.

캐나다의 전쟁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오타와 정부는 연합위원회의 결성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캐나다와 상의할 것을 주장했지만 캐나다는 대표권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오타와 정부는 외교문서 등을 통해서 캐나다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롱은 위에서 살펴본 로버트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가 강대국 중심이며 캐나다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약소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다. 이러한 롱의 인식은 2월 3일 캐나다의 외교부 부차관이었던 피어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에서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연합 조직체의 설립에 있어서 캐나다의 지위를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분노(resentment)할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에 유용한 감정이 아닙니다. (중략)

우선,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주요한 의무는 그들의 국가와 관련하여 그 조직체(연합위원회—필자 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오직 그 조직체가 캐나다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캐나다의 참여 없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에만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발발 이후 지금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의 이익에 영향을 준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쟁 중에 동맹국에 속한 모든 국가의 지위를 존중하면서 연합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평화 시기에 국제연맹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모든 국가의 지위를 존중하는 것은 효과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이 연합조직체(연합위원회—필자 주)에서 캐나다의 참여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들(캐나다가 미국, 영국과 동등한 대표권을 갖지 못한 일—필자 주)은 캐나다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당신과 제가 알다시피 캐나다는 전쟁이 시작되고 난 뒤 수백 가지의 경우에서 캐나다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은 단지 과거에는 영국이 혼자서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에는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과거에 있었던 배제의 경험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현재에는 불만족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략)

캐나다의 영향력은 영국과 미국이 정치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은 파트너이고 우리는 오직 부차적인 파트너일 뿐입니다. (후략)⁷¹⁾

인용된 편지에서 롱은 오타와 정부에 3가지 점을 충고하고 있다. (1) 미국과 영국의 가장 큰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그들이 만든 연합위원회는 캐나다의 직접적인 이익이 반하지 않았다는 것, (2) 모든 동맹국들이 연합위원회에서 대표권을 얻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 (3) 연합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지금까지 영국의 반식민지(semi colony)적 위치에서 캐나다가 겪어왔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지 배제의 주체가 영국에서 영국과 미국으로 확대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3가지 충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롱의 인식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권국가의 평등성이 실제로는 존중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 국제정치 장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2)의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롱의 국제연맹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인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오타와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캐나다의 지위와 달리 실제로는 캐나다가 강대국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며 강대국의 인식에서 캐나다는 약소국이며 단지 부차적인 파트너(juni-

71) Wrong to Pearson, 3 February 1942,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9, 1942-43, John F. Hilliker ed., 1980, pp. 124-126.

or partner)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편지의 (1)과 (3)의 내용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4) 레스터 피어슨(Lester Pearson)

피어슨은 캐나다가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피어슨은 국제연합의 창설과정에 참여하여 중견국이라는 언어와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인물이다. 국제연합이 창설된 뒤에는 1948년 로렌트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1950년대부터 활발한 유엔활동을 통해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정책을 실행하였다. 1957년에는 수에즈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은 바 있고, 1963년부터 1968년에는 캐나다의 수상이 되면서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중견국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하였다.⁷²⁾

피어슨도 롱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감각은 오랜 국제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피어슨은 18살의 나이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그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18년 이상을 지내면서 캐나다보다 다른 국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어슨은 1927년부터 캐나다 외교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말까지 런던에 있었다. 1941년에서 1942년에는 캐나다에 잠시 귀국하여 외교부의 국무차관보(assistant under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로 일하였고 1942년 6월에 워싱턴에 캐나다 대사로 부임하였다. 즉, 1941년부터 1942년간 오타와에서 일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에 캐나다 밖에서 국제적 경험을 쌓아 나갔다.⁷³⁾

72) 피어슨은 1927년 캐나다 외교부(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국제연맹에서 캐나다 대표로서 활동한 바도 있다. 1935년부터 1941년까지 런던에서 외교관으로 일하였으며 1948년부터 1957년까지 외교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캐나다 수상으로 활동하면서 캐나다의 외교정책에 많은 핵심적인 영향을 주었다.

피어슨이 오랜 국제경험을 통해 겪은 다른 캐나다 정부관료들과의 차별점은 국제정치의 구조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양차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세력상승과 이에 따른 미국과 영국의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피어슨은 1941년 초에 영국과 미국의 여러 협상에 캐나다의 대표로 참석하면서 영국과 미국 정상이 카드를 쥐고 협상게임을 할 때 모든 높은 패는 미국의 정상이 쥐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했다.⁷⁴⁾ 이는 1차 대전이후 영국의 세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였고, 미국의 세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영국에게 넘겨받았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피어슨이 겪었던 또 다른 차별적인 경험은 바로 미국이 더 이상 캐나다의 파트너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중립국에서 참전국으로 입장이 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전쟁의 승리로 변하게 되면서 영국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캐나다는 미국이 중립국일 때 영국과의 가까운 사이임을 이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가교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양국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에 따라 캐나다의 지위가 변화하게 되었다. 1942년 7월 롱을 대신해 워싱턴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부임하면서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피어슨이 워싱턴에 근무하면서 핵심적으로 담당할 임무는 캐나다의 입장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과, 미국정부의 입장을 캐나다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어슨은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과 인식을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다. 당시 미국은 캐나다를 하나의 독립국이 아닌 미국의 일부로 생각했고, 캐나다가 전쟁에 원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렇듯 미국이 캐나다 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를 피어슨은 워싱턴에서 수차례 경험했다.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피어슨이 1943년 3월 18일에 맥카시(Leighton McCarthy)⁷⁵⁾에게 보낸 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73) John English, *Shadow of Heaven: The Life of Lester Pearson. Vol. 1, 1897-1948* (Toronto: Lester and Orpen Dennys, 1989) p. 268.

74) English, 1989, pp. 240-241.

요즈음 형성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외교적 관계의 양상은 긴장관계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우리의 지위(position)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더하여 캐나다 정부가 이미 연합위원회의 구성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적절한 위치를 얻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우리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격식이 없으며 우호적인데 이러한 점은 국방과 전쟁물자공급 측면에서 매우 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에 더하여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 관료들은 종종 캐나다를 다른 국가들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나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캐나다에 대해서(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원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필자 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독립국가 이하로 취급당할 때 화를 내는 경우 미국은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전쟁 긴급상황으로 캐나다에게 갑작스런 협력을 요청할 때 캐나다가 독립국으로서 충분히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필자 주) 이해하지 못합니다. (후략).⁷⁶⁾ (강조는 필자)

미국의 세력부상과 세력전이로 인한 국제정치상의 구조변화를 인식하고 워싱턴에서 미국정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피어슨은 오타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할 수 없었다. 오타와 정부는 1942년 연합위원회의 구성과 1943년 UNRRA의 설립에 있어서 미국, 영국과 동등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위를 인정해 주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강대국들의 입장을 경험한 피어슨은 캐나다의 위치가 그들과 동등하지 않으며 강대국들의 인식상에서는 단순히 약소국에 위치해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타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당시 피어슨과 자주 대화

75) 맥카시(Leighton McCarthy)는 미국 워싱턴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근무한 캐나다 관료이다.

76) Pearson to McCarthy, 18 March 1943,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9, 1942-43, John F. Hilliker ed., 1980, pp. 1138-1142.

를 나눴던 미국의 국무부 부차관 애치슨(Dean Acheson)이 작성한 메모에서 캐나다 정부의 입장과 피어슨의 입장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피어슨은 그의 정부가 UNRRA와 관련해서 작성된 초안의 동의에 대해서 영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캐나다는 특히 UNRRA의 정책 위원회의 대표권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캐나다 정부는 영국 정부와 정책 위원회에 속하는 국가를 4개국으로 할 것인지 7개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한다. (중략)

캐나다 정부는 정책 위원회에서의 대표권과 관련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구호와 관련된 물자공급이 캐나다의 경제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참여하고자 한다. (중략) 나는 그에게 캐나다는 정책결정 위원회를 대신하여 물자조달 위원회에 캐나다가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나는 피어슨에게 정책위원회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피어슨은 캐나다가 정치적, 군사적 분야에서 4강대국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경제 분야에서 캐나다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그는 물자조달 위원회(Supply Committee)에 참여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관심 있어 했지만 그의 정부가 정책위원회에서 대표권을 얻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대안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⁷⁷⁾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어슨은 캐나다의 정부가 UNRRA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을 결정하는 정책 위원회에 강대국들과 함께 대표권을 얻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정책 위원회에 속하는 국가를 영국, 미국, 소련, 중국 이외에 3개국을 더 추가해서 7개국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애치슨은 미국의 대표로서 캐나다에게 정책 위원회의 자리는 줄 수 없으며 대신 캐나다가 가장 많은 영

77) Acheson, Memorandum of Conversation, 26 January 1943, in FRUS, 1943, vol. 1, General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pp. 864-865.

향력을 주고 있는 물자조달 위원회에서 대표권을 갖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피어슨은 이러한 애치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자 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흔쾌히 수락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2월 8일 킹수상은 워싱턴에 있는 피어슨에게 UNRRA의 설립에 있어서 캐나다의 대표권을 얻을 수 있도록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하라는 편지를 보낸다. 킹수상은 UNRRA의 핵심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책 위원회에서 캐나다가 대표권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캐나다가 제공하는 모든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할 만큼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는 킹의 주장은 다소 강한 성격을 띠었다.

캐나다 정부는 구제기관(Relief Administration, 연합국구제부흥기관 UNRRA—필자 주)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위원회(Policy Committee)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책 위원회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적인 국가연합사업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라고 할지라도 해당 국가들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만큼 완전하게 협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목표는 바로 캐나다가 이 기관에 구호물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만큼 구제기관의 정책 위원회에서 캐나다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입니다.(중략)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은 전후 구호를 제공하고 구제기관의 업무에 있어서 국가의 역량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효과적인 캐나다의 참여가 4강대국들에 의해 제한된다면 캐나다는 그러한 역량을 공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⁷⁸⁾

하지만 이에 비해 피어슨은 캐나다의 제한적 지위를 받아들여야 하며 UNRRA의 협상에서 캐나다가 정책 위원회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정책위원회의 권한은 포기하고 물자조달 위원회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78) King to Pearson, 8 February 1943,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9, 1942-43, John F. Hilliker ed., 1980, p. 778.

워싱턴에 있는 피어슨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국제구호 정책 위원회(International Relief Policy Committee)의 구성에 관하여 영국 대사인 홀(Hall)과 미국 국무부에 있는 애치슨이 캐나다에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피어슨에 따르면 홀과 애치슨은 캐나다가 국제구호기구에서 물자조달 위원회에서 의장국이 될 수 있으며 물자조달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정책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⁷⁹⁾

피어슨의 이러한 제안은 오타와 정부의 로버트슨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로버트슨은 피어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료들을 만나서 캐나다의 입장을 더 설득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로버트슨의 이러한 제안은 소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UNRRA의 구성을 결정할 때 캐나다와 같이 실질적으로 전쟁에 많은 기여를 한 국가에게 정책위원회의 대표권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반대를 했던 국가는 소련이었다. 피어슨은 이미 소련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⁸⁰⁾ 워싱턴에서 근무하면서 미국과 소련 등의 강대국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피어슨은 강대국들에게 인식되는 캐나다의 지위가 약소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4. 캐나다 관료들의 타자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1) 세계이해

현상학에서는 자아가 타인을 경험할 때 자아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79) Memorandum by Robertson, 26 February 1943,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9, 1942-43, John F. Hilliker ed., 1980, p. 782.

80) Chapnick, 2005, pp. 30-31.

상황을 토대로 하여 타자경험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는 것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다. 타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아와 타자가 함께 서 있는 구체적인 상황, 즉 세계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타자를 경험하면서 자아가 타자에 대해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그 때 주어진 상황, 즉 세계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자이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해석과정에 영향을 주는 세계의 성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는 제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 중에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 이외에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국가들까지 참전하는 상황으로 번져나갔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그 동안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해 오던 영국은 그 지위를 서서히 세력을 키워오던 미국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였고, 이를 이끌어갈 주체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1940년대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은 롱과 피어슨이었다. 롱과 피어슨은 모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강대국들의 첨예한 대립과 국가들 간의 충돌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체험하였다. 1차 대전의 경험과 더불어 롱과 피어슨은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국제사회는 강대국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캐나다는 급격하게 증가한 군사적, 경제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소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롱은 국제연맹에서 캐나다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모든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국제연합기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처럼 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약소국들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롱은 1920년대 말부터 워싱턴 대사로 활동하였고 피어슨도 오랫동안 영국에서 캐나다 대표로 활동하다가 1942년 롱이 오타와로 옮겨가면서 롱을 대신하여 워싱턴 대사로 활동하였다. 이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캐나다 대표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국

제사회가 강대국 중심의 정치의 장일 수밖에 없으며 강대국들은 국제사회를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들이 이해하고 있던 당시 세계의 모습은 세계 대전 속에서 안보와 평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강대국이며 미국, 영국, 소련 이외의 국가들은 약소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타자경험

캐나다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가로 국가적 자신감이 높았던 1940년대부터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1941년 12월 미국이 참전함에 따라서 국제정치 상황이 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캐나다의 국제적 위치도 함께 변하게 되었다. 1942년 당시 핵심 외교 관료였던 롱과 피어슨 등을 제외하고 킹수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관료들은 국력의 상승과 1940년, 1941년에 걸친 미국과의 조약체결을 통해서 캐나다의 국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강대국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941년 8월에 뉴펀들랜드 회담에서 배제되었던 경우나 1942년 1월 워싱턴 회담에서 강대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우에 강대국들에게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던 것이다.

1941년 1월 국제연합선언문이 발표되었던 워싱턴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중심의 연합위원회가 형성되었고, 그 후 추가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에도 캐나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영국과 미국정부에 캐나다도 함께 포함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전달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킹수상은 외교문서를 통해 연합위원회의 정책위원회에 미국, 영국과 함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할 시에는 캐나다의 지속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은 캐나다와 전부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깊게 관여하고 있는 물자조달분야에 한하여 물자조달위원회에서 캐나다가 대표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부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UNRRA의 경험은 연합위원회의 경험과 확연히 달랐다.

UNRRA는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국도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관료들이 자국의 위상을 대상화시켜서 강대국들의 캐나다에 대한 인식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이 캐나다 정부의 기여도를 인정해 줄 수도 있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당시 상황은 국제평화가 긴급 사안으로 가장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도 소련의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캐나다는 UNRRA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였다. 심지어 소련과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강대국에 속했지만 캐나다는 약소국들과 함께 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UNRRA의 경험은 앞선 1940년, 41년의 경험들보다 직접적으로 캐나다의 실제적 지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타자경험을 통해 미국과 영국, 소련 등 강대국들의 캐나다에 대한 태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강대국들이 캐나다를 평가하는 관점이 캐나다 정부관료들의 인식에 내면화 되면서 이러한 경험들은 점차 캐나다의 대타자적인 자기규정이 이루어지는 계기들로 작동하게 되었다.

롱과 피어슨은 캐나다 정부관료들 중에서도 특히 국제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인식을 오래 전부터 경험해 왔었고, 두 관료 모두 국제연맹의 경험, 워싱턴 대사관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서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의 캐나다에 대한 관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대국들의 관점을 내면화 시켰고, 실질적으로 캐나다가 약소국들과 같은 지위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약소국들과 구별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했다. 이와 같은 타자경험을 통해 국제사회가 평면적이지 않으며 수직적인 위계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에 관한 지평이 형성되었고, 타자경험과 위계적 지평을 통해 ‘중견국’이라는 대타자적인 자기규정을 형성할 수 있었다.

3) 지평형성

(1) 캐나다 관료들의 지평

지평이란 한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의미구성의 기반이라는 점에 대해 앞서 논하였다.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시작하면서 타자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형성된 킹과, 로버트슨, 롱, 피어슨 등 캐나다 핵심관료들의 인식을 살펴볼 때 이들의 인식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위계적 지평'을 통해 국제사회를 해석한다는 점이다. 지평이란 사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다. 사물들 간의 관계를 '색깔'이라는 지평을 통해 해석할 때 한 사물의 의미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설명을 국제정치에 적용해 볼 때 한 국가의 관료들이나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지평이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평에 따라 국가들 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의 내용이 국가정체성을 결정하고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캐나다 핵심관료들의 인식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평면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롱과 피어슨은 이미 오랜 국제경험을 통해 주권평등의 원칙이란 실질적 영향력이 없으며 강대국과 약소국은 웨스트팔렌 주권의 의미와 달리 실질적 불평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수직적 위계관계로 놓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아진 캐나다의 국력에 따라 약소국들 사이의 관계도 수직적 위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버트슨은 'medium belligerents'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약소국들 중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을 특별한 그룹으로 묶고 있고 롱도 국제사회를 단지 강대국과 약소국으로만 구별할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약소국들 내부에서도 구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캐나다 관료들은 여러 국제경험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를 위계적으로 해석하는 위계적 지평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위계적 지평의 의미

이들의 위계적 지평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가지

고 있던 위계지평의 의미가 단순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는 위계라는 단어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롱과 로버트슨은 전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국제문제에 참여하는 권한의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위계질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 때 캐나다는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했더라도 큰 기여를 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재정적, 군사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국가였기 때문이다.

만약 '위계'를 나누는 기준이 국가의 물질적 국력이나 기능적 능력일 때 '위계적 지평'이란 국가를 물리적 국력이나 기능적 능력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국가를 구별하여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강대국들에게 강대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캐나다 관료들은 높아진 국력에 따라 강대국들과 대등한 지위로 관계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캐나다 관료들은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왔다. 오히려 경제적, 군사적으로 캐나다보다 열등했던 중국이 덤바턴오크스 회의에 강대국의 지위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위계'의 뜻을 물리적 국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국가들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규정했을 때 구분기준은 물리적 국력이 기반이 된다. 하지만 물리적 국력에 더하여 그 국가의 오래된 역사나 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가 국가들의 위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란 물리적 국력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국력도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의 문화적 수준과 같은 추상적인 요인들로 결정되는 국가의 존재 가치정도도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국가들의 위계를 결정할 때에는 물리적 국력만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계적 지평'에 따라 국가들을 구별할 때는 물리적 국력 이외의 문화적 요소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⁸¹⁾

5. 소결

2장에서는 1942년과 1943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제적 사안들 중 캐나다의 자아규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핵심적인 사건 4가지를 살펴보았다. 캐나다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늘 영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함께 참여하여 양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1941년 8월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1942년 1월 워싱턴 회담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미국과 영국은 국제연합선언문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양국 주도의 연합위원회를 만들었다. 연합위원회에서는 전쟁 전략을 결정하고 전쟁물자의 생산과 운송에 관련된 중요한 논의들이 결정되었다. 캐나다는 당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재정적 원조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위원회에서는 배제되었다.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거의 1여 년 만에 식량부분과 관련한 사안을 담당하는 식량조달위원회에서만 참여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당시 캐나다에게 가장 중요한 국제적 사안은 UNRRA의 창설이었고, UNRRA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의 대표권을 얻는 것이었다. 캐나다는 UNRRA에서 캐나다가 어떠한 지위를 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창설되는 모든 국제기구에서의 캐나다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외교적 사안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UNRRA의 참여하는 강대국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으로 한정되었으며 소련의 반대에 따라서 캐나다는 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었고, 단지 물자조달위원회의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81) 국제정치에 있어서 문화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최정운, “문화와 권력,” 『세계정치』, Vol. 28, No. 1. (2007).

2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캐나다의 국제적 경험을 통해 캐나다의 핵심적 관료들이 캐나다의 위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가장 많은 국제적 경험을 쌓아왔던 롱과 피어슨은 강대국 중심의 정치가 국제정치의 핵심이라는 세계이해를 형성했다. 또한 여러 강대국들의 회담과 국가들의 연합기구의 창설과정에 참여하면서 캐나다 관료들은 강대국들의 캐나다에 대한 태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캐나다의 대타자아를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킹, 로버트슨, 롱, 피어슨은 국제경험을 통해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직적 위계질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은 후에 캐나다가 중견국이라는 위계적 성격을 지닌 대타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중견국’이라는 대타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캐나다의 대타자아형성과정 1944-1945

1. 국제기구의 창설과 캐나다의 외교전략

1) 덤바턴오크스 회의

1944년 8월 21일부터 10월 7일 동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위치한 덤바턴오크스저택에서 덤바턴오크스 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가 진행되었다. 공식적인 회의의 명칭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워싱턴 회담(Washington Conversations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Organization)’이다. 덤바턴오크스 회의는 국제연합 설립의 기초가 된 회의로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대표가 모여 덤바턴오크스 제안(Dumbarton Oaks proposals, 공식명칭: 일반 국제기구 창설을 위한 제안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을 발표하였다. 덤바턴오크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구성과 강대국들의 거부권에 관한 내용이었다.⁸²⁾

1942년에 진행되었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연합위원회 구성과 1943년 진행되었던 UNRRA의 설립에 있어서 캐나다의 주요한 관심은 각 기관에서 영국,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대표권을 얻는 것이었던 것처럼, 1944년에 국제연합의 설립을 위한 예비 회담이었던 덤바턴오크스 회의에서도 캐나다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제연합

82) 덤바턴오크스 회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8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미국·영국·중국의 3개국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2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과 교전국이 아니었던 소련이 중국과 동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본과의 교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덤바턴오크스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Robert C. Hildebrand, *Dumbarton Oaks: The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arch for Postwar Security*.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0)을 참고할 것.

의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이후 안보 이사회)에 포함되어 대표권을 얻는 것이었다.

캐나다 정부의 여러 관료들을 비롯하여 킹, 로버트슨, 롱, 피어슨과 같은 핵심 관료들은 이미 다양한 국제회담과 영국, 미국과의 양자, 다자 회담을 통해서 캐나다의 실제적인 위상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실제로 1944년 초반 강대국들이 덤바턴오크스 회의를 계획하면서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는 강대국으로 제한한다고 결정했을 때 캐나다는 자국의 배제에 대해서 쉽게 인정했다.⁸³⁾ 이는 1941년 캐나다가 영·미 정상회담에서 배제되었을 때 분노를 표현했던 태도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반응이었다.

2) 캐나다 정부의 외교전략: 기능이론 vs 미들파워

앞서 분석한 바대로 롱과 피어슨은 타자경험을 통해 국제사회가 국가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상태로 분화되어 있다는 위계적인 인식의 지평을 갖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캐나다의 지위를 보장하고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념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을 둔 외교전략을 세워나가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외교이념에 있어서는 오타와 정부관료와 워싱턴 주재 캐나다 대사관 관료들로 양분되어 나타났는데 롱과 로버트슨을 중심으로 하여 기능이론(functional principle)이라는 외교이념을 추구한 오타와 관료들과, 미들파워(middle power)라는 개념을 형성하여 강대국들에게 캐나다의 지위로서 인정받고자 노력한 피어슨과 리드(Escott Reid) 중심의 워싱턴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이었다. 기능이론과 미들파워라는 개념 모두 캐나다를 다른 약소국들과 구별 짓고자 하는 전략이었으며, 캐나다의 특별한 기능과 특별한 지위를 통해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 포함되고자 하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능이론과 미들파워의 개념정의는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에게 캐나다를 다른 약소국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국가로 인식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오타와

83) Chapnick, 2005, p. 79.

관료들과 워싱턴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관료들은 제 각기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캐나다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고, 강대국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선 오타와의 관료들은 영국정부의 도움으로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과 소련의 국제연합 조직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예비적 결정에 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상태였다. 이에 로버트슨과 롱의 의견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되었다. 이는 1942년 이후로 롱이 구상하여 캐나다 외교정책형성의 이념이 되었던 기능이론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반면 워싱턴 주재 캐나다 대사인 피어슨과 리드는 캐나다를 미들파워라는 언어적 규정을 통해 특정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안보이사회에서 대표권을 얻기 위해 미국과 영국을 설득했다. 하지만 영국의 자치령부 장관(Dominions Secretary)이었던 크렌본(Viscount Cranborne)은 회의가 개최되었던 8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캐나다의 미들파워개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이와 더불어 리드는 8월 17일 미국 대표와 예비적인 대화를 가졌고 미국대표에게 강대국들의 포괄적인 거부권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미국의 대표였던 파스볼스키(Leo Pasvolsky)는 덤바턴오크스 회의는 4대 강대국들의 모임이며 강대국의 동의를 없이는 국제기구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리드의 비판을 일축했다.⁸⁴⁾

결국 캐나다는 강대국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덤바턴오크스 회의에서 캐나다의 독자적인 노력은 뚜렷한 결실을 얻을 수 없었지만 캐나다의 권리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국무차관(undersecretary of state)이었던 카도간(Alexander Cadogan)의 노력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비강대국들의 지위는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되었다. 카도간이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확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안보이사회에서 배제된 국가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특정한 국가가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논쟁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회의에

84) Chapnick, 2005, p. 84.

참여할 수 있으며 만약 간접적으로 수반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해당국가의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비상임 국가들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⁸⁵⁾

이러한 강대국들의 결정에 대해서 롱은 만족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던 롱과 로버트슨은 강대국의 조화를 깨지 않으면서 캐나다를 포함한 약소국들의 지위를 부분적으로 보장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⁸⁶⁾ 하지만 피어슨과 리드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었다. 피어슨과 리드는 미들파워개념을 추구하지 말도록 지시한 롱의 결정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덤바턴오크스 회의의 기간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표들을 만나면서 캐나다가 중견국으로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노력으로 쉽게 강대국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2. 대타자아형성과정

롱과 피어슨은 오랜 국제경험을 통해 국가들로 이루어진 세계는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은 일련의 강대국이라는 타자경험을 통해서 국제정치의 장은 위계적인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해석의 지평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타자경험과 지평의 변화를 전제로 하여 1944년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대타적 자기규정, 즉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겪기 시작한다.

대타적 자기규정을 통해 미들파워라는 계급적 의미의 자기규정이 만들어진 1944년부터 캐나다 정부 내에서는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그 이전까지는 롱의 ‘기능이론’이 캐나다 전략의 중심 이념이었다. 하지만 피어슨

85) Hildebrand, 1990, chapter 6, pp. 122-158.

86) Minutes of Meeting of Working Committee on Post-Hostilities Problems에서 발췌한 것, 25 August,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10, 1944-45(vol 2), John F. Hilliker ed., 1980, pp. 633-634.

이 ‘미들파워’ 개념을 고안하기 시작하면서 오타와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과 워싱턴 대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으로 의견이 나뉘게 되었다. 키팅(Tom Keating)은 그의 책 『Canada and World Order』에서 이 시기의 국내정치의 양상을 ‘이상주의자(idealists)’와 ‘현실주의자(realists)’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캐나다 외교부 내에는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그룹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룹은 국제사회에서 캐나다의 위상과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약소국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이상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국제사회는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 전제하고 이러한 한계 안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약소국들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룹이라는 것이다.⁸⁷⁾ 이러한 키팅의 분석은 홈즈(John Holmes)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홈즈 또한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차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대해 외교부 내에서 2개의 다른 비전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관료 집단은 캐나다가 전후 질서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상주의적 관료집단(the more utopian wing of officialdom)”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⁸⁸⁾

1) 기능이론 외교이념의 형성

롱은 1944년 8월에 있을 덤바턴오크스 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를 준비하는데 있어 새로운 국제기구의 주요한 아웃라인은 이미 강대국들에 의해 정해졌으며 캐나다와 같은 약소국들은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롱의 인식은 1944년 2월 롱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휴전과 평화정착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캐나다는 이제

87) Keating, 2002, p. 17.

88) John W. Holmes, *The Shaping of Peace: Canada and the Search for World Order, 1943-1957, Vol 1*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9), p. 233.

더 포괄적인 캐나다의 입장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전체적인 분야를 다루지 않으며 불균형적으로 준비되어 왔다. 우리는 특히 국제 민간항공(international civil aviation)과 국제경제정책(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의 두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참여해 왔다. (중략) 우리는 민간항공과 통화안정, 상업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거부해야하며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생각을 발전시켜왔다.

워싱턴에서는 영국과 미국, 아마도 소련이 모스크바 선언에서 이미 던져진 주제였던 세계 안보 기구(world security organization)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런던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안(세계안보기구—필자 주)과 또한 정치, 안보, 경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캐나다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자 시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노력이다. 왜냐하면 이등국가(secondary country)로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특정한 이익에 맞게 무엇을 추가하고 변화시키도록 할지에 대한 주장을 할 정도의 위치에는 있어야 한다. (강조는 필자)⁸⁹⁾

롱은 새로운 국제기구는 강대국 중심이 될 것이며 비강대국은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캐나다를 비롯한 비강대

89) Memorandum by Wrong, 23 February 1944,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11, 1944-45, vol.2. John F. Hilliker ed., 1980, p. 1; 기능이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롱의 다른 문서로는 롱이 작성한 다음의 메모를 참고할 것. “우리는 거의 매일 국제적 권위가 강대국들의 손에 집중되어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영국과 미국이 연합 최고 위원회(Combined Chiefs of Staff)를 통해 협력하고, 소련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함께 전략을 세우면서 전쟁을 이끌어나가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넘겨주었다. 비록 독일에 맞서는 전쟁에서 캐나다는 국제연합 중에서 4번째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의 군사적 기여도의 크기란 3강대국들의 군사력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작은 정도의 수준이다. 바로 이것이 국제기구에 대해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Memorandum by Wrong, 3 November 1943,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9, 1942-43, John F. Hilliker ed., 1980, p. 827.

국은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주요안건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강대국이 제시한 사안들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을 정하고 강대국의 입장에 더하여 캐나다만의 특별한 국가이익을 덧붙여 추가적인 사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⁰⁾

덤바턴오크스 회의가 얼마 남지 않던 8월 초에 롱과 로버트슨은 영국정부에서 비밀리에 제공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미 영국, 미국, 소련 3개 강대국의 UN에 대한 계획을 모두 확인한 상태였다.⁹¹⁾ 그들의 계획은 모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캐나다와 같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속한 국가들에게는 강대국들의 계획에 자신들을 다른 국가들과 구별시켜 줄 특별한 외교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은 '기능이론'으로서 1942년 1월 20일 롱이 로버트슨에게 보낸 문서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롱은 오타와 정부로 옮겨오면서 이를 기능이론이라는 외교전략으로 발전시켰다.⁹²⁾

롱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되는 기능이론은 UN이 창설되는 과정에

90) 이러한 롱의 주장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롱과 피어슨이 공유하고 있던 세계에 대한 이해 즉, 단순히 '국제정치는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상황정의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이다. 위의 주장은 국제정치가 강대국 중심이라는 기본적인 세계이해의 전제 위에 '그러므로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는 새로운 의미의 구성이 더해진 것이다. 롱은 피어슨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강대국중심의 정치의 장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의 이해에 덧붙여 롱은 약소국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해석한 반면 피어슨은 강대국 정치의 장이지만 약소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캐나다는 약소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롱과 다른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91) Chapnick, 2005, pp. 80-81.

92) 앞서 1942년 1월 20일 롱이 로버트슨에게 연합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캐나다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전략에 대한 충고를 담은 편지를 쓴 내용을 살펴본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원리는 각각의 국가는 전쟁에 있어서 기여한 비율에 맞추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국제문제에 대해서 해당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이었다. 이는 후에 기능이론으로 발전시킨 외교적 이념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다.

서 캐나다가 국제사회에 참여하면서 국가가 외교전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된 외교전략 지침이자 국가 철학이었다.⁹³⁾ 롱의 기능이론은 국제정치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다. 롱보다 앞서 1933년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그의 책 ‘The func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를 통해서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설명했다. 미트라니의 이론과는 달리 롱의 기능이론(functional principle)은 미트라니의 기능주의(functionalism)보다 더 좁은 개념을 담고 있다.⁹⁴⁾ 롱이 주장한 기능이론(functional principle)은 미트라니가 주장한 기능주의(functionalism)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⁹⁵⁾ 롱이 고안한 캐나다의 외교정책으로서 기능이론은 국가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능력에 따라 책임감과 대표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제정치에서 비정치적 영역을 강조하는 미트라니의 기능주의와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미트라니의 기능주의에는 배타적 국가이익의 추구,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국제주의의 정신이 내포된 것이라면 캐나다의 기능이론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 추구하고 미트라니가 추구하는 국제주의의 정신이라는 가치 사이에 긴장관계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가진 능력과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에 따라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능이론은 19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당시 캐나다의 수상은 영연방 국가들이 영국의 결정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연방 국가들도 그 능력과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권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캐나다 기능이론의 내용은 1921년에서 1979년까지 지속된다.⁹⁶⁾

93) Miller, 1980, p. 309.

94) 미트라니의 기능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vid Mitrany, *The Func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rtin Robertson, 1975) 참조.

95) 미트라니의 논문을 포함하여 다른 논문에서도 미트라니의 이론을 설명할 때에는 function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캐나다의 외교정책을 다루고 있는 모든 논문에서는 롱의 기능이론을 설명할 때 모두 functional theor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캐나다의 외교정책을 언급하는 표현으로 functional theory 또는 functional principal을 기능주의라고 번역하면 미트라니가 설명하는 기능주의와 이해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functional principle을 기능이론이라고 번역하였다.

롱이 고안한 기능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국가는 각 국가가 가진 특정 영역에 대한 능력에 맞추어 국제사회 내에서 그 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의 경우는 강대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군사력 측면에서 더 우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강대국만의 기능을 발휘하면 된다. 이와 달리 경제력 측면에서 무역에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상업적 측면에서 특별한 능력과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국가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군사력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롱의 기능이론은 특별한 영역에서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 영역에 대해서 국가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⁹⁷⁾

캐나다가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캐나다 외교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 이론으로써 기능이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1942년 7월이었다.⁹⁸⁾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의 정책 전략으로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1942년 7월 롱이 워싱턴에서 오타와로 이동해서 캐나다 정부에 합류함으로써 그의 이론을 정부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2) 대타적 자기규정으로 미들파워 개념 형성

(1) 피어슨의 인식내용

앞선 논의에서 롱은 '강대국 중심의 정치'라는 세계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롱은 이러한 세계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했다. 그 내용은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96) 캐나다의 기능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J. Miller, "The Functional Principle in Canada's External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Vol. 35, No. 2 (Spring 1980), pp.314-315. 참조.

97) Holmes, 1963, p. 139.

98) Chapnick, 2005, p. 46.

미칠 수 없으며 강대국들의 조화로운 상태를 깨뜨려서는 안되고 약소국의 지위에 맞는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어슨은 ‘강대국 중심의 정치’라는 통과 동일한 세계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통과는 달리 이러한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약소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피어슨은 국제정치의 장에 약소국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특히 캐나다, 호주와 같은 중견국의 지위에 있는 국가들은 ‘중간’이라는 새로운 계급적인 개념 속에서 적극적인 약소국의 리더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피어슨의 미들파워에 대한 생각은 1944년 2월 1일 피어슨이 로버트슨에게 쓴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제 생각에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영연방과 더불어 더 확대된 국제기구에서의 캐나다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변화했는지에 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A) (중략) 제 생각에 우리는 또한 영연방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쟁으로 이끈 영국의 외교정책에 관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영국의 정책의 결과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는 분명 영국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국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의견은 영연방을 하나의 국제적 연합체로 보자는 의견을, 이 아이디어는 영연방 국가의 리더들이 벗어나고 있는 것인데,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의 연합체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각각 분리된 국가로서 우리 스스로 획득한 국가적, 국제적 지위로서 행동할 수 없고 또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B) (중략)캐나다는 4강대국(Big Four)에 속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국가들로 구성된 그룹 중에서 리더로서, 꼭 리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4강대국에 속할 만큼의 위치(position)를 가지게 되었으며—필자 주), 동시에 4강대국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중요한 국가도 아닌 위치(position)에 있습니다. 사실 작은 강대국(little Big Power) 또는 큰 약소국(big Little Power)이라는 위치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작

은 강대국이면서 큰 자치령(big Dominion)일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큰 국가(big fellows)”는 힘(power)과 책임감(responsibility)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지배권(control)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국가(little fellows)는 힘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이에 낀(in between) 국가로서 때때로 두 세계에서 가장 최악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충분하면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감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도 똑같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국가들이 강대국(Big Powers)이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서로의 협력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캐나다는 만약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이 그룹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영연방 밖에서 국제적인 지위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캐나다는 우리의 민족주의자와 국제주의자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사람들(워싱턴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일하는 캐나다 관료—필자 주)은 미래의 세계 기구가 단지 4강대국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을 기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이러한 **미들파워(middle Powers)**의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시킬지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⁹⁹⁾ (A, B로 내용을 구분한 것과 강조는 필자)

이 편지의 내용은 피어슨이 ‘미들파워’에 대한 개념을 문서로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더하여 피어슨을 포함한 당시 캐나다 관료들이 캐나다의 국제적 지위, 존재의 속성, 정체성 등과 같은 것과 관련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비록 이 문서가 피어슨의 인식만을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곧 캐나다 관료들이 당시 외교적 활동을 통한 타자경험을 통해서 캐나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던 인식내용을 대표해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B)의 내용을 살펴보자. (B)에서는 미들파워에 관한 피어슨의

99) Pearson to Robertson, 1 February 1944,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11, 1944-45(vol.2), John F. Hilliker ed., 1980, pp. 1174-1175.

인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3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피어슨은 “litte Big Power”와 “big Little Power”라는 용어로서 캐나다를 설명함으로써 ‘중간’이라는 캐나다의 위계적 위치를 인식하고 있다. 캐나다는 강대국(Big Power)에 속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little) 약소국(Little Power)로 분류되기에는 큰(big) 국가이다. 즉, 강대국에 속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강대국으로 분류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피어슨은 오랜 시간동안 국제적 경험을 통해서 강대국들이 보는 캐나다의 지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1942년 본격적으로 외교활동을 시작하던 캐나다 관료들과 국민들에게 자국의 지위란 강대국에 속할 만큼 큰 국가(Big Power)였다. 하지만 1942년부터 겪어 온 여러 가지 강대국이라는 타자경험들을 통해 캐나다는 큰 국가(Big Power)이기는 하지만 강대국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little)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는 전쟁물자조달과 같은 경제 분야나 군대파병과 같은 군사적 분야, 민간항공분야와 같은 특정분야에서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소국들과 하나로 묶여 취급받기에는 큰 약소국(big Little Power)이었다. 바로 이러한 대타자적인 인식을 통해 결국 피어슨은 캐나다를 미들파워(middle power)로 자기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미들파워라는 자기규정은 롱이 제안했던 기능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인식이라는 점이다. 피어슨이 캐나다를 “little Big Power”라고 했을 때 “Big Power”의 근거는 바로 높은 기능적 능력이었다. 캐나다가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에 훨씬 가까운 국가로 인식된 이유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높은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분야에서 강대국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민간항공회의에서는 영국과 미국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캐나다가 주도적으로 민간항공과 관련된 규정을 결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초안을 작성할 정도로 우수한 국가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피어슨도 1942년과 1943년에는 롱과 함께 캐나다의 외교이념으로서 기능이론을 설정하고 워싱턴에서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에게 캐나다의 기능이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하지만 피어슨은 캐나가 기능적으로 “Big Power”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ittle”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 롱은 기능이론을 통해 높은 기능을 가진 국가의

대표권을 인정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피어슨은 대표권을 얻기에 충분하면서도(enough) 충분하지 않은(not enough) 캐나다의 지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롱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피어슨은 높은 기능을 가졌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국가들(little Big Power)을 집단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어슨은 높은 기능을 가졌음에도 강대국적 지위와 대표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능이론의 한계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이론이라는 외교이념을 강대국들에게 설득시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어슨은 편지의 내용에서 언급한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은 “little Big Power”들을 새로운 국가집단으로 묶어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미들파워라는 국가정체성으로서 자기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B)의 내용에서는 피어슨의 미들파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면 (A)의 내용에서는 피어슨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 피어슨은 캐나다가 영국에 의해 세계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언급하면서 캐나다가 외교적으로는 영국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영연방을 하나의 국제적 행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캐나다가 다른 약소국들과 차별적인 점은 영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였으며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국가였다는 점이었다. 캐나다는 1867년 지금의 영연방국가가 완성되었고 독립을 함으로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영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영국의 반식민지(semi-colony)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캐나다는 독립적인 외교활동도 할 수 없었고 캐나다만의 외교관이 부재하여 영국이 캐나다의 외교적 역할을 대신 수행할 정도였다. 피어슨은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캐나다가 주권국가였음에도 캐나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국을 따라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바로 식민지의 경험과 기억이 피어슨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에 큰 해석의 지평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는 피어슨의 여러 가지 외교문서에서 영연방으로부터의 독

립과 캐나다만의 독립적인 주권확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눈에 띄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다.

피어슨의 영연방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외교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1944년 7월 18일 피어슨이 로버트슨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의 일부이다.

영연방은 조직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방위동맹으로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력과 집단적 행동을 형성하게끔 만드는 것으로서 이익(interests)이나 전통(traditions), 정서(sentiments)와 같은 것들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영연방은 통일 제국에서 발생한 개별적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기구의 발전은 분리되어있고 경쟁적인 국가들이 협력적이고 집단적인 것을 향해 가려는 움직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각 국가들을 하나로 묶은 것에 대한 전통이나 정서는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전체의 강점은 부분의 자유에 있다라는 영연방의 필수적인 원리나 정책은 어떠한 세계 기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위험한 지침입니다.¹⁰⁰⁾

피어슨에 따르면 전체가 먼저 있고나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요소들이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협력할 때 전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영연방의 모체는 통일제국(unitary Empire)으로서 통일제국은 개별국가가 생기기 전에 발생한 전체였고, 거기에서 개별국가들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피어슨은 이제 영연방은 필요가 없으며 독립된 국가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된 국가들이 영국과 무관하게 행동하며 이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세계기구를 조직할 때 세계기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어슨이 캐나다의 독립된 주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고, 식민지의 경험과 영국과 분리되고자 하는 의지가 피어슨의 외교활동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100) Pearson to Robertson, 18 July 1944,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11, 1944-45(vol.2), John F. Hilliker ed., 1980, p. 617.

짐작해 볼 수 있다.

(2) 리드의 인식내용

피어슨이 1944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들파워에 대한 개념을 고안하여 언어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리드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빼 놓을 수 없다. 리드는 1939년 1월부터 외교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인물로서, 1939년부터 1941년까지,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워싱턴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2등서기관과 1등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1941년부터 1944년 사이에는 오타와정부의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전 후 기간에 정부의 외교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⁰¹⁾ 리드는 피어슨을 멘토로 삼을 만큼 피어슨과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피어슨 스스로 리드보다는 본인이 더 실용주의적이라고 말할 만큼 리드의 성격은 더 진취적이고 솔직하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¹⁰²⁾ 리드는 국제연합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캐나다를 미들파워로 규정짓고 강대국들에게 미들파워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강력한 반대뿐만 아니라 캐나다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들파워의 정의를 구체화시키며 설득시키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다.

롱은 새로운 국제기구의 중요한 결정은 이미 강대국들이 정했으며,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약소국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단지 강대국들의 결정 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의 기준을 정하고 덧붙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준비하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드는 이러한 롱의 견해를 비판했다. 리드는 캐나다가 단지 강대국들의 초안 내용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소극적인 반응만 해서는 안 되며 캐나다만의 완전한 초안을 작성하여 강대국들과의 협상기반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³⁾

101) 리드의 경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Escott Reid. *On Duty: A Canadian at the Making of the United Nations, 1945-1946*.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1983), 서문-17p; Keating, 2002, p. 19.

102) Chapnick, 2005, p. 90; English, 1989, p. 284.

수많은 강대국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던 캐나다로서 리드가 이렇게 캐나다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1월에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리드는 1944년 11월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회의(International Civil-aviation conference)에 캐나다 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52개의 연합국 대표들이 참여하여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규정과 기타 관련사항 등을 결정한 행사로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열렸던 행사들 중 가장 크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이 행사의 경험은 리드에게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캐나다의 언론들은 리드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었고, 심지어 행사에 참가한 미국의 대표도 공개적으로 리드를 항공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칭찬함으로써 캐나다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리드의 인식은 더욱 확신을 더하게 되었다.¹⁰⁴⁾

리드가 이 행사를 통해서 캐나다가 중요한 지위에 있으며 강대국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된 이유는 회의에서 빈번하게 표출되었던 영국과 미국의 갈등을 캐나다의 대표로서 중재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은 민간항공회의에 참석했던 강대국들로서 여러 가지 항공분야에 대한 협의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엇갈린 의견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 이유는 항공과 관련된 협의 사안들이 강대국들에게는 국가 이익과 즉결된 중대한 사안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강대국들의 갈등 속에서 캐나다는 분명 갈등의 중재자로서 활약했고, 회의의 참여자들에게는 영국, 미국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삼국 주도국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리드는 캐나다 대표로서 미리 민간항공회의에서 협의하고 발표할 합의문의 초안을 작성해 온 상태였다. 그랬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었고 캐나다의 초안을 바탕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를 만들 수 있었다.¹⁰⁵⁾

103) Chapnick, 2005, p. 97. Keating, 2002, p. 19.

104) Chapnick, 2005, p. 97.

이러한 리드의 경험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롱을 정면에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44년 초기부터 미들파워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캐나다의 실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피어슨과 리드에게 국제민간항공회의의 경험은 이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3) 미들파워개념에 대한 롱의 비판

롱과 피어슨, 리드 모두 캐나다가 강대국에 속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약소국들과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것에 반대했으며, 약소국들 중에서 캐나다는 구별되어야 할 존재라는 점에 모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롱은 기능적 능력에 따라 구별하는 것에서 이론을 더 확장시키지 않았다. 롱은 ‘기능’이 국가를 구별시켜줄 수 있으며 국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높은 기능을 가진 국가들을 그룹으로 묶어 특정한 ‘지위(status)’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회의적이었다. 다음은 1943년 11월 3일 롱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 중 일부이다.

(A) 영향력은 실제로 기여했거나 기대되는 기여만큼 그 비율에 맞추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명확성은 과거에는 지위(status)를 강조함으로써 종종 모호해졌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1926년 국제연맹을 탈퇴했는데 그 이유는 의회에서 상임국으로서의 권한을 얻지 못했고 이에 따라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브라질이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브라질처럼 (강대국의 지위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필자 주)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B) 지위(status)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종종 세계를 강대국(Great

105) Escott Reid, *Radical Mandarin: The Memoirs of Escott Rei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9), pp. 175-176.

Powers)과 약소국(Small Powers)으로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나누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이나 파라과이와 같은 소국(diminutive states), 파나마나 슬로바키아와 같은 국가들은 위성국가(satellite states), 네덜란드나 브라질과 같은 중간국가(intermediate states)들을 무차별적으로 약소국이라는 (지위로서—필자 주) 이름을 붙이는 어리석은 일은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희망한다.¹⁰⁶⁾ (A와 B로 나눈 것은 필자)

(A)의 내용을 보면 롱이 국가들을 기능적 능력으로 분리하지 않고 강대국 또는 약소국이라는 지위로서 나누는 것은 비현실적인 분리(unreal division)라고 비판하고 있다. 롱은 브라질의 예를 들면서 기능적인 능력에 맞지 않는 지위를 요구하는 외교적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롱에 따르면 캐나다는 확실히 UN의 회원국들 중에서 주도적인 이등국가이지만 이러한 국가구분의 기준은 계급적 관념을 전제로 하여 위계적 지위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되고, 세계 평화와 전쟁승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 것이어야만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롱에게 있어 기능원리와 미들파워전략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기능원리에 따른 국가구분은 국제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영향력 분포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라면 미들파워개념은 아무런 기능 없이 단순히 캐나다가 다른 약소국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만들어준 이름일 뿐이었다.¹⁰⁷⁾

롱과 로버트슨은 피어슨과 리드의 미들파워전략을 반대했다. 하지만 롱이 세계를 위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앞선 장에서 롱과 피어슨은 타자경험을 통해 국제사회를 위계적으로 해석하는 지평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롱이 지위로서 국가를 구분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해서 국제정치의 장을 평면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롱은 피어슨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강대국과 비강대국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좀 더 세분화된 위계로 구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롱은 구분의 기준을 계급적인 지위로 나눈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력이나

106) Memorandum by Wrong, 3 November 1943,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9, 1942-43, John F. Hilliker ed., 1980, p. 828.

107) Chapnick, 2005, p. 70.

특정분야에 대한 우수한 기능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국가를 구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롱은 피어슨과 달리 위계적으로 구분된 국가들 중 캐나다와 같은 위치에 속한 국가들을 집단화 하여 ‘미들파워’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을 뿐이다.

롱이 기능적 능력으로 국가를 세분화 하여 구별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문서의 내용 중 (B)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에서 롱은 국가들을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눈 것은 지위를 부여해서 국가들을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브라질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얻고자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롱은 모든 국가가 기능적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약소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약소국들 중에서도 기능적 능력에 따라 능력이 적은 소국(diminutive states)이나 능력이 중간정도 되는 중간국(intermediate states)로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롱은 미들파워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롱은 세계를 능력에 따라 위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롱의 인식은 다음의 문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킹수상이 1944년 8월 4일 하원의 토론에서 덤바턴오크스 회의에서 발표할 캐나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연설한 내용의 일부이다.

세계를 강대국(great powers)과 그 나머지(the rest)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심지어 위험한 것입니다. 강대국이 강대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화유지를 위해 그 국력을 사용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가장 작고 가장 약한(smallest and weakest)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거의 0에 해당되는 것에서부터 가장 강한 국가(greatest powers)의 능력과 거의 차이나지 않을 만큼 강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¹⁰⁸⁾

108) King, 4 August 1944, in Canada, House of Commons, Debates, 5th

이러한 킹의 발표내용은 롱과 로버트슨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롱의 인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¹⁰⁹⁾ 위의 인용문에서 킹은 세계를 강대국과 비강대국으로만 나누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비강대국 중에서도 국력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국력이 약한 국가부터 강대국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까지 비강대국에 속한 국가들도 그 능력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세계를 국력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1944년 10월 덤바턴오크스 회의가 끝나고 난 뒤 12월 30일 덤바턴오크스 회의에서 발표한 국제연합 구성의 프로포절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은 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피어슨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 초안은 강대국들에게 안보이사회에서 영구적 지위를 확보해 줌으로써 평화유지를 위한 강대국들의 우선적인 책임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그 초안이 마무리된 후에는 강대국들이 아주 중요한 수준의 결정에 대해서 강대국들끼리 개별적으로 모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진다. 하지만 초안의 내용 중에서 국제연합에 속한 다른 회원국들이 평화유지를 위해서 그들의 국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거의 0에서부터 강대국과 맞먹는 수준의 정도 까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책임을 다르게 요청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강대국에 해당하는 내용과—필자 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없다.¹¹⁰⁾

Session, 19th Parliament, 27 July 1944 to 31 January 1945, vol. 244, 5909.

109) Chapnick, 2005, p. 82. 1944년에는 캐나다 국내적으로 징병제도의 위기가 극적으로 증가한 상태에 있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Normandy Invasion)이 시작되면서 지원병으로만 충족하던 캐나다의 파병군대의 수는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다시 한 번 징병제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라 킹은 국내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건강악화까지 겹쳐 1944년 이후부터 1946년 9월 정권이 끝나는 시가지 외교문제에 대해서 롱과 로버트슨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었다.

110) King to High Commissioner in Great Britain, 12 February 1945, in

이러한 롱의 생각은 1945년 3월 킹수상에게 보고한 내용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월 루즈벨트 대통령과 킹수상이 워싱턴에서 미팅을 갖기 전 롱은 킹수상에게 캐나다의 입장으로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했다. 롱은 덤바턴오크스에서 결정한 사안은 전쟁에 상당한 기여를 한 국가와 강대국들이 가진 권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미국이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캐나다와 같이 전쟁에 대한 기여도가 큰 약소국들은 리베리아(Liberia)나 엘살바도르(El Salvador)와 같은 나라들보다 안보이사회의 비상임국 선출에 있어 더욱 자주 선출될 수 있는 특별한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¹⁾

덤바턴오크스 회의의 결과에 대한 롱의 생각은 피어슨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미들파워전략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지만 결국 캐나다가 약소국과는 구별되는 존재이며 마땅히 강대국들에 의해 구별되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두 그룹모두 동일했다.

3. 피어슨의 중견국정체성 형성

1) 롱과 피어슨의 차이

앞서 1942년과 1943년의 캐나다 외교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국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11, 1944-45 vol.2, John F. Hilliker ed., 1980, p. 682. 롱이 작성한 프로포절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할 것. Wrong, Draft Memorandum on Dumbarton Oaks for Communication to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Soviet, Chinese, and French Governments, 30 December 1944, in LAC, DEA Papers, RG25, Series A-3-b, vol. 5708, File 7-V(s), Part 4.

111) Wrong to King, 7 March 1945,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11, 1944-45 vol.2, John F. Hilliker ed., 1980, pp. 701-702.

강대국이라는 타자경험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계를 해석하는 기반으로 작동하는 지평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캐나다 외교정책형성에 있어 국가 철학적 이념으로 작용해 온 ‘기능이론’을 제시한 롱과, 캐나다를 중견국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갖도록 만들어준 피어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의 오랜 국제경험과 캐나다 대표로서의 활동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국제사회를 위계적인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로 인식하게 만드는 지평을 갖도록 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위계적 질서라는 창을 통해 국제사회와 국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롱과 피어슨에게 ‘캐나다’라는 국가를 주체로 한 자기규정이란 또한 위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강대국과 나란히 ‘위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았던 캐나다 관료들에게 강대국들의 냉혹한 외면과 무시하는 ‘위에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규정에 의문을 던져 주었고, 그렇다고 ‘아래에 있는 존재’에 머물기에는 캐나다의 국력이 다른 약소국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롱과 피어슨은 약소국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위계의 스펙트럼을 인식하고 있었다. 롱에게 있어 세계를 강대국과 그 나머지로만 나누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약소국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인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수치상의 기능적 능력이 0에서부터 강대국에 미치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롱은 ‘기능의 수준’이라는 기준에 따라 국가를 위계적으로 나누었다. ‘전쟁에 대한 기여도’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강대국들은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지휘했기 때문에 강대국의 위치에 있어야 하며, 리베리아나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들은 전쟁에 대한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캐나다보다 높은 위계적 위치에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롱의 국가 구분은 곧 국제사회에서 맡을 수 있는 책임과 권리의 정도와 맞물리는 것이었다. 기여도가 높은 국가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권리를 맡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제연합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롱과 마찬가지로 피어슨에게도 캐나다의 자기규정에 대한 고민이 위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오히려 롱보다는 피어슨의 경우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캐나다의 위계상 위치에 대한 질문이 드러나고 있었다. 캐나다는

‘Big Power’ 인가 ‘Little Power’인가. 타자경험을 통해 피어슨을 포함한 캐나다 관료들에게 드러난 캐나다 정부의 위상은 Big도 아니었고 Little도 아니었다. 그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 더 이상 강대국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전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약소국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위치의 상승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던 피어슨에게 캐나다의 위상에 대한 고민은 국가라는 주체를 넘어 자기의 문제로 내려온 수준의 직접적인 것이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어슨이 ‘little’과 ‘big’을 구별하고 ‘little’ 사이에서도 ‘big little’로 국가를 구별했던 것은 룡과 동일하게 기능적인 능력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룡이 194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능이론을 캐나다의 외교정책으로 발전시킬 때 피어슨도 워싱턴 대사관에서 미국의 대표들을 만나면서 기능이론의 개념을 설명하고 캐나다가 국제기구에서 강대국과 함께 대표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캐나다는 영국과 미국 소련 다음으로 4번째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소국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또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항공, 운송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높은 기능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피어슨과 룡은 모두 타자경험을 통해 얻게 된 위계적 해석지평을 통해 ‘기능적 능력’이라는 기준을 통해 캐나다의 위계상 위치로서 자기규정을 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룡과 피어슨을 포함한 캐나다 관료들은 기능적 능력으로 캐나다를 다른 약소국들과 구별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피어슨은 기능적 능력으로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강대국 못지않은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그룹들 즉, ‘little Big Power’이면서 동시에 ‘big Little Power’인 국가들을 묶어 ‘미들파워’라고 하는 하나의 위계적, 지위적, 계급적 속성의 이름을 부여해서 하나의 존재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다. 룡은 캐나다를 구별시키고 국가의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형성하는 수준에서 멈췄다면 피어슨에게 외교전략보다 더 중요했던 문제는 바로 국가의 존재문제였던 것이다.

2) 피어슨의 국제정치적 지평

롱과 피어슨은 모두 국제사회 해석의 지평으로 위계적 지평을 가지고 있었다. 위계적 지평을 통해 롱은 약소국들 사이의 위계를 구분했고 상대적 위계가 높았던 캐나다는 위계에 맞는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원리가 롱이 고안한 기능이론의 핵심내용이었다. 하지만 피어슨은 외교전략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즉, 기능이론에서 더 나아가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까지 형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했다. 롱과 피어슨은 위계적 지평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롱과 달리 피어슨은 국가의 자기규정문제, 국가 정체성문제로 논의를 확대시켰다. 피어슨이 캐나다의 대타자아를 언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위계적 지평 이외에 다른 수준의 지평들이 국제사회를 해석하는데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두 관료 모두 위계지평을 공유하였고 또한 기능적 구분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피어슨만이 중견국이라는 국가의 자기규정단계, 대타자아형성단계, 존재규정단계까지 해석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국제정치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들, 즉 국제정치를 해석할 때 특정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던 여러 가지 지평들 중에서 몇 가지 지평들이 피어슨에게 중요한 해석의 기반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피어슨에게 영향을 준 지평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 국제정치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평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에서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여러 가지 이론적, 실천적 논의의 내용을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논의들 중 피어슨에게 영향을 주었던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1) 국제적 차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1919년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역사에 참혹한 재앙을 가져다주었고, 이후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 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제사회

에서 널리 공유되었던 이론은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상주의였다.¹¹²⁾ 이상주의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가정하며 인간의 진보에 대해 신뢰하는 국제정치이론으로서 1차 대전 후에 전 세계적 반전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상주의가 주된 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간의 선한 본성과 진보에 대해 신뢰하는 이상주의의 주요 내용들은 전간기 당시 미국의 주된 영향을 받으며 국제정치이론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던 자유주의의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이상주의는 자유주의의 기본 가정에 따라 국가 간 문제에 대해서 이성애 기반한 실천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으며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¹¹³⁾ 1차 대전이 발발했던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이상주의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상주의를 기초로 윌슨은 국제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간 결사체로서 국제연맹을 창설하였다.

하지만 1939년 독일이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이상주의의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현실주의가 주도적인 이론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이상주의를 비판했던 국제정치학자로서 대표적인 현실주의자는 카와 모겐소였는데 이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상주의 가정을 반대했다. 현실주의는 인간본성에 대해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정하며 인간 사이의 갈등이나 투쟁이 모두 이러한 인간본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제제도를 통한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동맹과 세력균형정책 등의 권력분배를 통해야 하는 것이다.¹¹⁴⁾ 이처럼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주

112) 자유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영호,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유주의 사상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Vol. 12, No. 1 (2009);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하영선 외 역,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12), 6장; Chris Brown, Terry Nardin, Nicholas Rengger, *International Relations in Political Thought: Texts from the Ancient Greeks to the First Wor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chapter 7-8; Michael W. Doyle, *Ways of War and Peace: Realism, Liberalism, and Socialism* (New York: W.W. Norton, 1997);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algrave, 2001)

113) 김영호, 2009, pp. 9-10.

요한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에게도 국제 정치사상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피어슨은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자유주의와 이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피어슨과 함께 리드도 이상주의의 기본 가정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1944년과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즉, 국제질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강대국과 약소국이 모두 평등한 주권의 보장 위에 형성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리드는 그의 자서전 『On Duty』에서 이러한 이상주의에 대한 유토피안적 믿음(utopian hopes)을 1947년에서 1949년까지 피어슨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당시에 북대서양 공동체(North Atlantic community)를 형성하여 후에는 연방국가(federation)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국제정치에 대해서 이상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¹¹⁵⁾

피어슨의 이상주의에 대한 믿음에 따라 그는 약소국의 역할과 영향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롱과 피어슨은 ‘국제정치는 강대국 중심의 정치의 장이다’라는 공통의 세계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작용을 통해 형성된 세계에 대한 해석은 서로 대조적이었다. 롱은 국제정치는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롱의 인간본성에 대한 회의적인 가정에 따라 구성된 해석이었다.¹¹⁶⁾ 약소

114) 현실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algrave, 200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하영선 외 역,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12), 5장.

115) Reid, 1983, p. 14; Greg Donaghy, Stephane Roussel ed., *Escott Reid: Diplomat and Scholar*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4), 서문 참조.

116) 롱은 외교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 하나로서 인간본성에 대한 회의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Granatstein, 1982, p. 117.

국은 강대국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며, 약소국은 단지 강대국의 결정에 추가하거나 빼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피어슨과 리드는 약소국들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강대국들의 결정을 수정하는 식의 소극적인 반응만 해서는 안 되고, 약소국만의 의사를 형성하여 강대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과 진보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형성된 해석이었다. 피어슨과 리드는 다른 어떤 관료보다도 국제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 모두 워싱턴에서 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국제경험이 부족한 바탕에서 나온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간주할 수는 없었다.¹¹⁷⁾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캐나다가 강대국들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독립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캐나다를 포함한 약소국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국력이 다른 약소국들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적 능력에 맞는 대표권을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을 강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어슨은 롱보다 더 현실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적 차원: 영연방주의와 민족주의

1차 대전의 종전 무렵인 1918년 1월 당시 미국 대통령었던 우드로 윌슨은 전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원칙의 내용을 담은 14개조항을 미국의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윌슨의 14개조항 중 상당부분이 약소국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라고도 알려져 있다. 윌슨의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약소

117) 피어슨과 리드는 학계에서 이상주의자(idealist)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실 이상주의자라는 명칭은 피어슨이 자신에게 스스로 붙인 것이었다. 피어슨이 스스로를 이상주의자라고 묘사했던 이유는 당시 국제정치학계에 유행하고 있었던 현실주의(realism)에 반발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롱과 로버트슨은 강대국이 국제 질서를 편성하고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피어슨과 리드는 강대국이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믿었다. English, 1989, p. 284. 참조.

식민지국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민족주의가 퍼져나갔다.

캐나다를 포함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 자치령들도 영제국의 식민지였고,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영연방에 속한 국가로서 독립적 외교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영국과 자치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담이 1887년 처음 개최되었지만 여전히 자치령 정부는 영국정부 하위기관에 속해있는 지위일 뿐이었고, 20세기 초반 식민지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민족주의의 흐름에서 자치령들도 벗어날 수 없었다. 1차 대전 종전 이후 1926년 영국의 뵈로우 선언을 통해 자치령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얻게 되었고,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법적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영국 정부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공식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¹¹⁸⁾

1차 대전을 겪은 후 영연방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안보였다. 법적 독립권을 얻었지만 강대국들의 전쟁을 경험했던 영연방들은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을 대비하여 국가안보가 최우선의 과제였고, 이는 영국과의 동맹이나 기타 강대국들과의 집단안보체제 없이는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영국 중심의 영연방의 결속을 통해 안보를 확보한다면 어렵게 얻어 낸 독립적 주권이 훼손될 여지가 컸고, 영국과의 관계로 인해 1차 대전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윌슨대통령의 주도로 1920년 창설된 국제연맹에 참여한다면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면서도 동시에 국가평등의 원칙에 의해 주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다른 어떠한 영연방국가들 보다도 특히 캐나다는 영국을 따라 1차 대전에 참전하여 국내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독립적 주권을 획득하고 영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118) 뵈로우선언(Balfour Declaration)은 1926년 영국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자치령들의 정치적 외교적 독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과 자치령은 영제국(British Empire)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며 영국은 자치령에 대해 국내, 국외 사안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웨스트민스터 헌장(Statute of Westminster)은 1931년 12월 11일 영국 의회가 발표한 헌장으로 1926년 뵈로우 선언을 기반으로 성립하고 있던 영국 연방 체계에 법적 근거를 준 것이다.

국가적인 과제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영연방보다 국제연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독립적 지위확보를 인정받고자 했다.¹¹⁹⁾

하지만 국제연맹의 실패와 함께 1930년대 경제적 공황, 독일의 성장 등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변하였고, 이에 따라 영연방 국가들은 영연방 결속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영연방 국가 중 호주는 특히 지리적으로 안보에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연방 결속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영국과 영연방 회원국들의 수상들이 모이는 제국회의(Empire Conferen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영연방의 결속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¹²⁰⁾

하지만 캐나다는 호주와 달리 영국과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호주는 국내적 결속이 높았던 것과 달리 캐나다는 국내적으로 영국계 캐나다인과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 나뉘어 있었고, 1차 대전에 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하면서 징병제의 문제로 국내적 대립이 심화되었다. 또한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하여 미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웠고, 당시 미국의 국력이 영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세력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연방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다. 1차 대전 직후부터 2차 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캐나다의 수상은 자유당 출신의 메켄지 킹으로서 3번에 걸쳐 총리를 역임하고 있었다. 킹수상은 영국의 수상이나 고위 관료들보다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관료들과의 만남을 더욱 많이 가졌고, 국가의 독립적인 지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영연방 수상들의 모임인 제국회의에도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¹²¹⁾

이에 더하여 1940년대 당시에는 캐나다 국가 내부적으로도 영국과의 식민지적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상징들을 제거하고 독립국가로서 캐나다만의 독립된 상징을 만들고자하는 고민들과 실천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의 관료였던 리드(Escott Reid)는 캐나다만의 독

119) A. Brady, "Dominion Nationalism and the Commonwealth,"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 10, No. 1. (Feb 1944), pp. 1-17. 참고.

120) Brady, 1944, p. 14, Chapnick, 2005, p. 55.

121) Creighton, 1976, pp. 56-57, Chapnick, 2005, p. 55.

립국가로서의 상징을 만드는 24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중에는 국왕의 호칭을 “King of Canada”, 또는 “Queen of Canada”로 바꾸는 것, 국립도서관을 만드는 것, 국립대학교를 설립하는 것 등이 있었고 이 중 상당부분이 실천된 바 있었다.¹²²⁾

이처럼 캐나다 내부에서는 연방국가로서 캐나다가 설립된 1867년부터 1차 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꾸준히 국내적으로 영국으로부터의 국가독립과 관련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본격적으로는 국제적인 민족주의의 흐름과 함께 1, 2차 세계대전 참전하게 되면서 영연방 회원국으로서의 캐나다와 독립적 국가로서의 캐나다 사이에서 위치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¹²³⁾

피어슨에게는 캐나다의 식민지적 경험이 캐나다에 대한 자기규정과정에 또 다른 해석의 지평으로 작용하였다. 앞서 피어슨은 여러 문서를 통해 영연방의 무용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영국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캐나다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해 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피어슨과 더불어 미들파워로서의 자기규정에 동의하고 그 이상을 공유했던 리드도 또한 피어슨 못지않게 캐나다의 독립적 주권에 대해서 고민이 많던 인물이었다. 앞서 리드가 1944년 3월 캐나다 내의 식민지적 잔재를 없애고 캐나다만의 독립국가의 상징을 만드는 방안 24가지를 제시하는 ‘Twenty four point draft programme’을 제안한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리드는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독립국가로서 캐나다의 상징을 만들고 식민지적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상징들을 없애는 것이었다.

캐나다정부와 국민의 아무런 합의와 동의도 없이 영국을 따라 1차

122) Reid, 1989, pp. 166-169.

123) 1943년 7월 캐나다 정부관료인 디펜베이커(John Diefenbaker)와 크랙스톤(Brook Claxton)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보수당이었던 디펜베이커는 캐나다가 영연방에 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영연방의 회원국으로서 대표자격을 얻는 것이 캐나다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연방의 대표들의 모임인 제국회의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크랙스톤은 보수당의 의견을 비판하며 캐나다는 영연방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캐나다만의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hapnick, 2005, pp. 54-55. 참조.

대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과 높은 국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에게는 영국의 식민지이며 언제나 영국의 정책을 따르는 국가로 인식되었던 워싱턴에서의 경험은 피어슨에게 국제사회를 해석하는 또 다른 지평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식민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 독립된 주체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어슨은 캐나다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그 능력에 맞는 대표권을 주장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캐나다는 누구이다', '캐나다는 어떠한 존재이다'와 같은 자기존재규정 차원으로 문제를 확대시켜야 했으며, 결국 '중간적 존재'라는 대타자아형성을 이끌어 낸 것에는 식민지적 경험이 큰 지평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V. 중견국인정 논쟁

피어슨은 1944년까지 롱과 함께 각종 연합기구에서 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외교원칙으로서 기능이론을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피어슨은 1944년 2월 처음으로 ‘미들파워’라는 용어를 사용면서부터 이제는 캐나다의 대표권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대국을 설득하는 근거로서 기능이론이 아닌 미들파워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피어슨과 리드는 덤바턴오크스 회의와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개최되었던 1944년과 1945년에 걸쳐 강대국들 중 특히 미국과 자주 만나며 미들파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1. 미들파워 개념의 구체화

미들파워에 대한 강대국과의 담론 형성은 피어슨과 리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롱과 로버트슨은 이들의 미들파워 개념을 옹호하지 않았고 강대국들에게 설득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피어슨은 오타와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독자적으로 미국 관료들을 만나면서 미들파워 개념의 한계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교화시키며 개념을 다듬어 나가기 시작했다.

피어슨은 1942년 워싱턴 대사관으로 자리를 이동한 뒤부터 줄곧 캐나다에게 더 우호적인 국가는 영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¹²⁴⁾ 당시 캐나다의 권리에 대해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미국이 아닌 영국이었고, 영국이 캐나다와 이해관계를 크게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자치령부(Dominion Office)는 국제연합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대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구체적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어슨과 리드는 캐나다의

124) Chapnick, 2005, p. 87, p. 90.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오판했다. 피어슨은 오타와 정부의 로버트슨에게 미국대표들을 만나서 미들파워 개념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설득하라고 강요했고, 피어슨도 또한 오타와 정부의 지시와 관련 없이 별도로 워싱턴에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미들파워의 개념을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하고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44년 미들파워라는 용어가 고안된 후에 피어슨과 리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미들파워의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었다. ‘미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강대국과 약소국의 범위에서 볼 때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중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개념이 모호했고, 이러한 이유로 강대국들은 미들파워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1945년 1월 피어슨과 리드는 미국무부의 관료를 만나서 오타와 관료들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미들파워공식(middle power formula)’를 제시했다. 국제연합이 3가지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1) 강대국(great states), (2) 6개-10개의 이등국가(between six and ten secondary powers), (3) 나머지 국가(the rest of the member countries)로 구성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리드는 안보이사회의 비상임국가 6자리 중 4자리는 중간그룹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선택의 기준은 국제연합의 활동에 있어서 군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기꺼이 능력을 사용할 의지를 지닌 국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⁵⁾

이러한 피어슨과 리드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일관된 주장을 유지했다. 비강대국을 구별하는 데에 있어 중간(middle)과 하위(small)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리드는 15개의 잠정적인 중견국가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다시 이 국가들을 3개의 범주로 구분했다.¹²⁶⁾

- i. 전쟁에 참여했던 연합국가(캐나다, 인도, 네덜란드, 브라질, 벨기에, 호주, 멕시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 ii. 중립국(스페인, 터키, 아르헨티나)

125) Chapnick, 2005, p. 100.

126) Chapnick, 2005, p. 101.

iii. probationary period가 지난 후 중견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enemies(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와 같이 리드는 중견국에 속하는 국가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국가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미들파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미국대표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지만, 리드가 제시한 중견국 목록으로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 (1)의 기준을 볼 때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연합국가들 중 9개의 국가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국가를 배제시킬만한 타당한 근거인지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중견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전쟁에서의 '실제 군사적 기여도'를 제시했던 피어슨의 주장을 떠올려 볼 때, 리드가 제시한 (2)와 (3)에 속하는 국가들은 중립국으로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피어슨과 리드가 제시한 미들파워의 개념은 그 정의와 구분 기준에 있어서 모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미들파워개념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심을 두고 분석해야 할 점은 이들이 제시한 미들파워의 정의와 기준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이들은 왜 미들파워개념을 제시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롱이 제시한 기능이론을 전제로 하여 미들파워개념을 고안한 것이었다. 즉, 캐나다처럼 강대국은 아니지만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내의 대표권과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국가에 한하여 미들파워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들에게 미들파워의 정의는 '높은 기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로 요약될 수 있었고, 기준은 '기능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들파워의 정의와 구분기준이 무엇이었던가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기도 전에 '미들파워'라는 단어를 먼저 형성하여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이들에게 해결되어야 했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던가가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1월 피어슨과 리드는 미국무부 관료와의 미팅에서 “캐나다

와 다른 이등국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중국보다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룩셈부르크나 파나마와 같이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국가들과 캐나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두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¹²⁷⁾ 이처럼 이들에게 해결되어야 할 일차적 과제는 다른 약소국들과의 구별과 이를 통해 존재의 가치수준을 높이는 일이었고 이를 미들파워라는 개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2. 미들파워개념을 둘러싼 미국과 캐나다의 논쟁

1) 미국의 주장: 형식적 주권평등성의 관점

강대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형성된 ‘미들파워’에 대한 담론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미국의 주장이었다.¹²⁸⁾ 미국이 캐

127) English, 1989, p. 286.

128) 1943년 10월에 개최되었던 모스크바 회담을 계기로 국제정치의 주도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에게 영연방은 영국의 세력유지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다. 영국이 영연방이라는 카드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국제연합에서 최대한 영연방국가가 대표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덤바턴오크스 회의가 열리기 전 1944년 5월에는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영연방 국가의 수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었고 영국을 포함한 연방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모여 영연방국가들의 결속을 확인했다. 이 회의를 통해 영국의 외무장관인 이든은 연방국가에 우호적인 국제기구의 조직형태를 제시하였고, 앞으로 있을 국제연합의 창설을 위한 강대국들의 예비회담에서 약소국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조직을 추구할 것이며 새로운 약소국들의 구성은 영연방국가 중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처럼 영국에게 영연방국가가 중요했지만 특히 영연방국가 중 국력이 제일 높은 캐나다가 가장 중요한 국가였다. 영국 자치령부는 캐나다에게 덤바턴오크스 회의 전에 계획된 강대국들의 예비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련과 미국 비밀리에 알려주었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소련과 미국의 국제연합의 조직구성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문서를 공유하였다. 특히 영국의 국무차관 카도간은 다른 영국 관료들보다도 더욱 캐나다에 대해 동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1944년 덤바턴오크스 회의와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걸쳐 캐나다가 미들파워로서 강대국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따라서 미들파워개념

나다가 미들파워라는 개념을 통해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에 대해 제시했던 근거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들파워로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소국들 중에서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견국의 지위에 어떠한 국가가 속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피어슨은 ‘군사적 기여도’라는 구체적이고 단일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었고, 리드는 15개의 국가 목록을 작성해서 제시함으로써 기준의 모호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덤바턴오크스 회의에서 미국의 대표였던 파스볼스키는 피어슨의 의견대로 군사력을 기준으로 비강대국을 구별한다고 하더라도 군사력에 더하여 ‘도덕적 리더십(moral leadership)’이나 ‘지역적 대표권(regional representation)’과 같은 다른 기준들을 포함시켜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하면서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 나갔다.¹²⁹⁾

구별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이미 롱이 제시한 기능이론에서도 예전부터 제기된 문제점이었다.¹³⁰⁾ 롱도 ‘기능적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국가들을 구별하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국가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능이론의 핵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별한 기능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었으며, 미들파워 구분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기준의 모호함이라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제기된 두 번째 문제는 국가 주권평등의 원칙의 위배와 관련한 사항이었다. 기준의 모호함은 지속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었지만 주권평등의 원칙은 1684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형성되어 이어져오던 국제사회에 내재된 근본적인 규범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미들파워개념에 반대하는 미국의 주요한 논리적 근거로 작용했다. 주권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미국의

에 대한 담론을 분석함에 있어서 영국보다는 미국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129) Chapnick, 2005, p. 101.

130) Chapnick, 2005, p. 80.

주장은 다음의 내용에서 캐나다의 주장과 비교하여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2) 캐나다의 주장: 실질적 주권불평등성의 관점

미국이 캐나다의 중견국적 지위를 인정해 줄 때 침해되는 주권평등의 원칙은 바로 약소국들 간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였다. 즉, 국제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던 강대국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상태에서 약소국들만의 주권평등을 대상으로 주권평등의 원칙을 언급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중견국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경우 캐나다로 인해 다른 약소국들의 주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캐나다는 주권평등의 원칙위배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1945년 2월 24일 피어슨은 연설을 통해 “주권평등은 난센스”라고 말하며 “완전한 평등(absolute equality)은 완전히 소용없는 것(absolute futility)”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¹³¹⁾

캐나다 정부가 주권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1944년 8월 2일 캐나다 정부가 영국의 자치령부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¹³²⁾ 이 문서에서 주권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3강대국들의 특권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약소국들에 대해서 강요하는 주권평등의 원칙을 지지하는 강대국들의 모순된 주장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소련이 효율적인 동맹체제의 유지해야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그들의 특권보장을 합리화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모스크바 회담에서 결의한 “모든 국가들의 주권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peace loving state)”를 강조하는 것은 완벽한 모순이며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캐나다 외교이념인 기능이론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기능’에 따

131) Globe and Mail, Feb. 24, 1945.

132) King to Dominions Secretary, 2 August 1944,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11, 1944-45, vol.2. John F. Hilliker ed., 1980, p. 629.

라 국가를 구별하고 차별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능이론의 기본 원리는 기능적 능력의 크기에 따라 국제연합기구에서 차등적인 대표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에 따르게 될 때 기능적 능력의 크기에 따라 국가들은 차별될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주권평등의 원칙이 위배될 수밖에 없다. 캐나다정부는 기능이론을 강조하면서 강대국들의 권리도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진 기능의 크기만큼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위에서 설명된 기능이론에 따라서 강대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도 정당화 된다. 강대국이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상임이사국 대표권’과 ‘거부권’이라는 특별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캐나다도 기능에 따라 차별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캐나다에 대해서 주권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들어 특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캐나다가 미국에게 제기했던 주권평등 원칙의 부당함에 있어서 주권을 적용하는 범위는 강대국을 포함한 것이었다. 미국이 강대국을 배제한 약소국들간 주권평등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캐나다는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두 집단 간의 주권평등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1940년대 중반 당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국가의 “주권”을 근거로 미들파워에 대해 형성된 담론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권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시각을 함께 살펴보고 분석의 틀로 활용할 수 있다.

3) 중견국 인정논쟁에 대한 이론적 분석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국제정치의 근본을 이루는 조직 원리가 월츠의 무정부상태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즉, 모든 국가들은 법적 주권을 소유하며 베스트팔렌 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크래스너는 이와 같은 월츠의 무정부상태의 가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국제정치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이 침

해되고 있으며 베스트팔렌 주권의 제약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제사회의 규범적 원칙에 의해 국가 주권은 법적 독립성을 가지며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들의 관계에 있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약소국들의 주권이 실제로는 제약받게 되면서 힘의 논리가 규범의 논리를 이기는 것이 국제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크래스너의 설명이다.¹³³⁾

월츠식의 무정부상태가 국제정치의 조직원리라고 한다면, 실제 국가 간에 관계가 발생할 때는 국가 간 위계가 형성되고 위계에 따라 국가의 기능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운용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원리는 무정부상태로서 주권국가들의 대외적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조직원리가 구성된 후에 그 위에서 형성된 실제적 차원의 운용원리는 불평등관계가 형성되는 위계적 상태로서 두 원리의 층위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¹³⁴⁾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따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주권에 대한 입장은 모두 무정부상태의 조직원리를 기본가정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두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제정치의 근본적 가정으로 삼아왔던 주권평등의 원칙을 자신들의 논리로 삼고 있다. 이는 1943년 10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이 만났던 모스크바 회담에서 국제연합의 창설을 준비하면서 ‘주권평등의 원칙’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삼국정상 회담의 내용에 다른 연합 국가들도 찬성한 것을 통해 볼 때 베스트팔렌 주권은 국제정치의 규범적 원리로 인정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주권평등의 원칙을 강대국을 배제한 뒤 약소국들만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의 4강대국이 거부권이나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대표권과 같은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의 재발 방지와 평화유지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사안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논리로 정당화 하였고, 캐나다가 중견국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약소국들 간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133) Stephen D.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134) 국제정치의 조직원리와 위계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전재성, “국제정치 조직원리 논쟁과 위계론,” 『국제정치논총』, Vol. 54, No. 2 (2014).

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미국이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불평등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미국은 실제적인 국제사회의 운용원리가 위계적 상태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운용원리로서 위계상태를 가정하고 있었다면, 캐나다 또한 다른 약소국들과 비교해 볼 때 국제사회에 기여한 점이 많았고, 국력 차원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를 중견국이라는 위계적 특성을 지닌 지위의 국가라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미국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불평등이라는 위계적 운용원리를 가정하면서도 약소국들 간의 불평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권국가의 평등원칙이라는 원리를 중견국담론에 적용한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8월 2일 캐나다 정부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통해 캐나다도 또한 국제사회의 운용원리는 국가 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위계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서의 3가지 요약내용 중 첫 번째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모순된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위해 강대국들의 특권보장을 합리화하면서도 주권평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스스로의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위계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임에 반해 주권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위계적 질서의 운용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캐나다의 지적이 정당한 것이었다.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약한 내용을 통해 캐나다정부는 위계적 운용원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특권보장도 지지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캐나다의 특권보장도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모두 무정부상태의 조직원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 간의 위계가 발생하며 실질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위계적 운용원리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를 ‘중견국’이라는 특별한 지위로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주권평등’이라는 조직원리상의 원칙을 제시하며 서로 층위가 다른 근거를 들어 모순적인 논리로서 캐나다의 논리를 반박했음을 알 수 있다.

3. 계급적 존재로서 중견국 의미 분석

캐나다는 높은 물리적 국력과 전쟁 기여도가 있었음에도 강대국들에게 약소국의 지위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창설되기까지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제기구에서 캐나다의 대표권을 확보하고 강대국들에게 다른 약소국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구별되기 위한 전략으로 캐나다 관료들은 기능이론과 미들파워의 개념을 제시했지만 강대국들은 기능이론만 인정하였고, 피어슨이 제시한 미들파워개념은 미국과 소련뿐만 아니라 캐나다에게 우호적이었던 영국까지도 인정해주지 않았다.¹³⁵⁾ 기능이론과 미들파워는 비슷하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기능이론은 특정 분야에 능력이 있는 국가는 그 분야에서 영향력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캐나다와 같이 다른 약소국들 중에서도 높은 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이 다른 약소국들과 구별될 수 있는 좋은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미들파워개념 또한 그 이론적 근거는 기능이론에 있었고 이에 더하여 ‘미들’이라는 위계적 지위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능이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약소국들과 구별될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었다. 캐나다가 강대국은 아니지만 약소국들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중간’이라는 영역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중간’국가에 맞게 강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약소국들과 달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들파워라는 위계적 지위 부여는 단순히 높은 기능적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미들파워개념이 기능

135) 영국은 1944년 덤바턴오크스 회의가 진행되던 당시에 캐나다가 처음으로 미들파워의 개념을 소개하고 중견국으로서 캐나다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함께 중견국 개념을 반대했다. 하지만 1945년이 되자 미국과 소련의 대립축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은 국제연합에서 영연방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영국의 지위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영연방 국가들을 중견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대표권을 얻도록 할 것에 합의했다.

이론의 내용과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들파워개념만이 갖게 되는 다음의 3가지 차이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미들파워라는 개념은 국가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앞서 2장에서 위계적 지평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면서 국가들의 위계를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물질적 국력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가치도 포함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만약 위계의 정의를 물리적 국력 차원으로만 한정시킨다면 한 국가가 중견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물리적 국력만 갖추면 될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충분히 물리적 국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프랑스는 물리적 국력이 강대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위치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이는 바로 강대국, 중견국과 같은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이 존재의 가치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능이론에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지 존재를 인정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강대국들이 강대국들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높은 군사력이 기반을 두는 것이지만 단지 군사력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여 그 존재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2차 대전 직후 프랑스와 중국은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존재의 가치는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높았던 것이다.

피어슨이 워싱턴에서 미국 관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고민하던 문제는 바로 캐나다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강대국 또는 중견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력을 쌓기 위한 전략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미들파워’라는 하나의 존재적 개념을 만들었다. 국제사회에서 캐나다는 존재가 인정받아야 하는 가치의 수준은 강대국보다는 낮지만 약소국보다는 높은, 그 중간쯤에 위치한 것이었고, 그 가치만큼 캐나다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다. 중간적 위치에 존재하는 국가라고 했을 때 중간이라는 의미는 통계적으로 물리적 국력의 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라 국가를 수직선상에 분류하여 양적 위계질서를 만들고 그에 위치시켰을 때 파악된 중간자적 존재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타자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규정’의 결과로서의 ‘나’라는 존재적 수준의 의미에서 중간이며 강대국은 아니지만 다른 약소국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의 가치수준에서 중간적 존재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론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미들파워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둘째, ‘기능’은 유동적인 반면 ‘미들’은 고정되는 것이다. ‘기능’이라는 것은 유동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 기능적 능력의 크기에 맞는 대표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경제적 능력이란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적 상황에 따라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능력의 유동적 성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박탈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공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피어슨도 미들파워개념을 주장하면서 만약 기능이론에 따를 경우 한 국가가 특정분야에서는 강대국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약소국이 되기도 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국가라도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¹³⁶⁾ 기능이론에만 의존한다면 캐나다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권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높은 기능적 능력에 맞는 ‘미들파워’라는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캐나다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특정국가를 존재수준에서 강대국이나 중견국이라고 분류할 때에도 그 국가가 강대국적 존재수준 혹은 중견국적 존재수준에 속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 또는 기능적 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이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하지만 특정국가가 특정한 위계적 지위로 분류되고 그 지위가 언어적으로 표현되며 국가 간 언어적 담론이 형성되면 그 위계적 지위에 해당하는 국가는 물리적 능력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적 차원에서 국가의 위계적 지위가 고정되었을 때에는 쉽게 물리적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지라도 이에 따라 지위가 강등되지 않을 수 있다.

136) Erika Simpson, "The Principles of Liberal Internationalism According to Lester Pearson," *Journal of Canadian Studies*, Vol. 34, No. 1, (Spring 1999), p. 79.

앞서 언급하였듯이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으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강대국의 지위에서 약소국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국력의 상태에 있었다. 더 이상 프랑스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었고 1940년대 당시에는 캐나다보다도 더 낮은 국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기능이론에 따른다면 프랑스는 캐나다와 같이 약소국의 범주에 분류되어야만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프랑스를 약소국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덤바턴 오크스 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은 프랑스를 안보이사회의 상임국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프랑스가 안정된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논의의 결과를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를 안보이사회에 포함시킬지 여부의 결정을 언제까지 보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프랑스에 대한 좌석은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었다.¹³⁷⁾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될 때 강대국들은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프랑스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강대국들이 프랑스를 기능수준에서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적 차원에서 강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다.

국가를 기능적 능력이 아니라 존재가치 수준에서 인식한 사례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중국도 해당된다. 외교부 차관이었던 로버트슨은 1942년에 발표된 국제연합선언문을 보고 캐나다보다 중국이 강대국의 범주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¹³⁸⁾ 또한 외교부 부차관이었던 롱은 1943년 UNRRA의 창설을 위해 강대국의 참여를 결정할 때 미국, 영국, 소련과 더불어 중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즉, 중국이 물리적 국력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기능이론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것이며, 중국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중요한 전략적 논의에서 제외된다는 가정하에서만 중국이 강대국에 포함된 것에 대해 납

137) Robert C. Hildebrand, *Dumbarton Oaks: The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arch for Postwar Security*.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0), pp. 122-123.

138) Chapnick, 2005, p. 20.

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¹³⁹⁾

이러한 로버트슨과 롱의 중국에 대한 이해는 국가들이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능이론은 국가들이 단지 기능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것에서 만족한다. 이는 기능, 능력, 기술만 인정받을 뿐 존재는 인정받을 수 없다. 중국은 당시 UNRRA의 프로그램에 원조 수혜국으로 포함될 만큼 국력이 약했고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지만 강대국에 포함될 수 있었다. 기능이론에 따르면 당시 아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중국은 약소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영국, 소련과 나란히 강대국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물론 다양한 전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이 포함된 이유도 있었지만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전통과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인 만큼 높은 존재 가치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강대국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캐나다는 중국은 물론이고 프랑스보다도 높은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표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상임이사국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는 강대국들이 캐나다를 존재적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캐나다를 중견국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국력이 크게 떨어져 국가의 존재유지 자체에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국제사회 내에서 ‘미들’이라는 위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¹⁴⁰⁾

셋째, 미들파워로서 중간적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중견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때 국제사회의 장(field)에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중견국’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나게 된다. 1944년 덤바턴오크스 회의와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 강대국들은 기능이론의 내용은 받아들였지만 피어슨과 리드가 제시한 미들파워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능이론은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미 고정

139) Memorandum by Wrong, 3 November 1943, in Published Documents, DCER, vol. 9, 1942-43, John F. Hilliker ed., 1980, p. 827.

140) Chapnick, 2000, pp. 190-191.

된 두 개의 카테고리를 수정할 필요가 없이 약소국들 중에서도 전쟁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능적 능력에 따라 해당분야의 대표권을 인정해줌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미들파워개념을 받아들이고 캐나다를 미들파워로서 규정한다면 국제사회에는 미들파워라는 하나의 새로운 장이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강대국들에게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의 한 부분을 내어줘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곧 그 영역만큼 강대국들이 약소국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중견국들과 공유해야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견국들이 지속적으로 약소국들과는 다른 권한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범주로서 국제정치의 장의 요구하는 미들파워는 기능이론과 다르게 강대국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¹⁴¹⁾

미들파워개념은 국가에 존재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이고, 존재가치는 기능과는 다르게 쉽게 박탈될 수 없는 고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은 중견국들이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될 경우 강대국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들에게 장의 일부를 내어주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들파워는 단지 물리적 권력에 따른 위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계급적 존재'를 일컫는 언어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국내적인 논의에서 특정 집단을 일컫는 사회학적인 의미가 아니다. 즉, 특정 직업이나 수입, 이념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집단을 가르키는 차원에서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단지 국가가 가진 속성에 따라 수동적으로 부여받은 지위가 아니다. 무수한 타자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규정'의 결과로서의 '나'라는 존재적 수준의 의미에서 중간이며 강대국은 아니지만 다른 약소국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얻고자 했던 존재의미로서 '중간'이었던 것이다.

141) Holbraad, 1984, p. 64.

VI. 결론

1. 중견국으로서 자기존재규정과정의 현상학적 분석 정리

지금까지 본 논문은 캐나다가 중견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세부적인 과정과 함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해 보았다. 국가가 중견국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현상학의 상호주관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세계 속에서 다른 국가와 상호작용하는 모습과 상호작용을 통해 객관화된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가는지 파악해 볼 수 있었다.

후설의 논의 속에서 구체적으로 캐나다가 자기존재를 규정하는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 세계이해, 타자경험, 지평형성, 대타자아형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분절하여 각각의 내용과 그 내용이 담고있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적 순서대로 발생하는 과정으로 가정하여 논의하였지만 실제로 세계 속에서 자기존재규정이 일어나는 과정은 위의 과정들이 시간적 순서대로 분절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첩되고 반복되면서 각각의 과정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발생할 것이다.

캐나다는 1,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 등장했다는 특이성을 갖고 있었다. 세계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캐나다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세계 전쟁의 원인이 강대국들의 정치때문이며 국제정치의 실질적인 주체는 강대국이라는 이해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세계이해 속에서 캐나다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대국들과의 경험을 통해 캐나다의 국제적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세계 속 위치가 약소국의 지위로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 캐나다 관료들은 국제사회가 무정부적 조직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위계적 운용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위계성을 인식하게 되고 위계적 지평을 기반으로 하여 '미들파워'라는 하나의 대타자아를 규정하게 된

다.

이렇게 형성된 중견국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은 단지 캐나다의 물리적 국력상의 위계성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어슨이 인정받고자 했던 미들파워라는 캐나다의 지위는 단지 국력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캐나다의 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추구되었던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내에서 하나의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은 국제사회 내에서 하나의 장(field)을 형성할 수 있는, 고정된 지위를 부여하는, 하나의 계급적 존재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2. 1945년 이후 캐나다 외교정책의 구성주의적 정리

1) 캐나다의 국제사회 내 ‘국가역할규정’과 ‘국가이익정의’

1945년은 1942년, 1943년의 국제상황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1945년이 되면서 강대국들의 이해갈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2번의 세계 대전을 겪었던 국제사회는 무엇보다 강대국들간의 연합과 조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강대국과 비강대국 모두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소국들의 지위는 보장받을 수 없었으며 강대국으로부터 배려나 관심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연합 창설의 막바지로 향하는 지점인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더 이상 캐나다를 포함한 약소국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고 캐나다의 중견국 아이디어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했다.¹⁴²⁾

캐나다의 권리에 열정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을 보여준 피어슨과 리드도 국제평화를 중요시 하였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갈등 앞에서는 캐나다의 존재를 인정받는 일이 우선과제가 아니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142) Chapnick, 2005, p. 115.

서 롱과 로버트슨과 의견을 일치시켰으며, 덤바턴오크스 회의 때 보여주었던 것처럼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롱의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따라 캐나다가 최대한 강대국들의 갈등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을 고려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미들파워 캠페인을 하지 않았고 최대한 자제된 행동을 통해 협소화된 전략을 펼쳐나갔다. 캐나다의 제 일의 목표는 국제기구의 성립 자체의 문제였고 부차적인 목표가 캐나다가 이등국가로서의 대표성을 갖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¹⁴³⁾

하지만 1945년 이후 10년 뒤에 캐나다는 확실하게 중견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1946년부터 매켄지 킹 정부에 이어 로렌트(Louis St. Laurent) 정부가 시작되었고, 로렌트 수상의 신임을 얻은 피어슨이 오타와 정부로 돌아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었다. 로렌트 수상은 국제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던 킹 수상과는 달리 국제사회 안에서 캐나다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었고 국제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에 반대하지 않는 수상이었다. 이러한 로렌트 수상의 성향이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중견국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정의하고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피어슨이 외교부 장관에 된 것이었다. 피어슨은 1946년 9월 오타와 정부의 외교부로 돌아왔고 1948년에는 외교부 장관이 되었다. 1, 2차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는 캐나다 수상이 외교부 장관직을 겸임했지만 로렌트 정부가 시작되면서 외교부 장관과 수상의 직위가 분리되었다. 로렌트는 오랜 시간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피어슨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였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어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¹⁴⁴⁾

1948년부터 냉전이 시작된 1950년대를 거쳐 캐나다는 영연방,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중견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의 역할과 국가 이익을 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¹⁴⁵⁾ 캐나다가 1940년대에 지속적으로 노력

143) Keating, 2002, p. 26.

144) John W. Holmes, "Canadian External Policies since 1945," *International Journal*, Vol. 18, No. 2 (Spring, 1963), p. 137.

145) Holmes, 1963, p. 140.

해왔던 것은 바로 강대국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대표권을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캐나다는 약소국들과 동일한 지위에 속할 수 밖에 없었고, 강대국들로부터 약소국들과 구별되는 대표권을 얻을 수 없었다. 캐나다는 강대국들이 국제연합에서 상임이사회의 대표권과 거부권을 얻는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강대국들과 동일한 권리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강대국들의 결정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안보와 세계평화를 강대국들의 손 안에만 맡겨둘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캐나다는 국제사회 안에서 강대국들의 관계를 매개하고 갈등에 대해 협상과 타협을 통해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설정하게 되었다.

캐나다가 세계의 평화유지를 국가적 목표로 삼고 국제사회 안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설정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작용한 결과였다. 우선, 캐나다가 과거 영연방 국가이자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두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국과 미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실제로 캐나다는 1940년대 국제사회 내에서 중간이라는 위계적 위치에 있다는 자각을 한 바 있었다. 즉, 강대국도 아니었지만 약소국도 아닌 중간자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기규정을 통해 1950년대 부터는 국제사회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정의할 수 있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타협과 협상, 규범을 강조하는 캐나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피어슨의 영향이 제일 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앞서 피어슨이 가지고 있던 세계이해의 지평 중에서 당시 국제적으로 널리 퍼져있던 이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피어슨은 이상주의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제도와 국제기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규범과 제도로서 세계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피어슨은 실제로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국가의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¹⁴⁶⁾ 이처럼 캐나다가 1950년대 이후 중재와 타협의 역할로서 캐나다의 이익을 규정한 것은 피어슨의 영

146) Lester B. Pearson, *Mike: the memoirs of the Right Honourable Lester B. Pearson, Vol. 1*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2), p. 294. Pearson, 1972 Vol. 2, p. 32.

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역할 규정과 국가 이익의 설정으로 인해 캐나다는 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제연합의 평화활동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¹⁴⁷⁾

2) 캐나다의 외교정책형성

약소국과 구별되는 존재를 인정받고 전후 국제질서를 재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캐나다가 대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시했던 미들 파워개념은 1950년대 소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cold war)이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국가행위와 연결되어 비로소 온전한 외교전략이 되었다. 캐나다는 195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국제주의를 표방하며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국제평화와 질서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 외교전략 내세워 ‘중견국’만의 특별한 외교행태를 규정지어 나갔다.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이러한 외교전략이 실제 국제사회에서 실행되었고 다른 국가들도 중견국으로서 존재를 규정하며 비슷한 외교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중견국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히 캐나다만의 국가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집단적인 국가군을 지시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다자주의가 캐나다의 외교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적 내용이었다.¹⁴⁸⁾ 이에 따라 캐나다는 1949년 4월 창설된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1956년에는 국제적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수에즈 위기를 해결하면서 피어슨은 이 사건을 통해

147) J. L. Granatstein, ed., *Canadian Foreign Policy Since 1945: Middle Power or Stellite?* (Toronto: Copp Clark, 1969) p. 18.

148) 키팅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 캐나다의 핵심적인 외교정책의 내용은 다자주의이다. 캐나다의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형성할 때 실천적 전략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다자주의라는 것이다. 그의 책 『Canada and World Order』(캐나다와 세계질서)에서 키팅은 그의 연구 목적이 이러한 캐나다의 다자주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Keating, 2002, p. 2.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 현상학적 중견국 연구의 함의

중견국 외교정책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중견국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앞서 논의한 바 있다. 행태에 따라 중견국을 정의할 경우 중견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와 같은 제도적 측면을 신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물리적 능력에 따라 중견국을 정의할 경우 국력의 수직적 분포 상 중간정도의 위상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중견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의 속성을 중심으로 중견국을 정의하고 이들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은 '힘의 분포'와 '제도'라는 외부적인 요인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스스로 중견국으로 규정하는 '국가정체성'의 측면에서 중견국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능력이나 행태, 국가정체성을 중심으로 중견국을 연구하는 기존연구들의 한계점을 지적하였고, 중견국연구에 있어 근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은 국가들이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원인과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캐나다의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과정들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해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기존연구들이 '행태', '능력', '국가정체성' 등으로 연구의 초점을 구별하는 것은 인위적인 구별이며, 현상학적 접근에 따라 국가정체성을 분석할 경우 기존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던 국가의 속성들이 자기존재규정과정 속에 모두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캐나다가 2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기존의 고립주의적인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자 기반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캐나다의 높은 경제력과 군사력이었다. 전쟁을 통해 국력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캐나다의 국민들과 정치관료들은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중요한 국제적 사안이었던 국제구호와 국제기구의 창설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캐나다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였고, 강대국들을 포함한 타국가들과의 교류 등 타자경험을 통해 캐나다의 객관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타자아로서 위계적, 계급적 의미의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1940년대 중반 당시에 캐나다는 ‘중견국’이라는 계급적 지위로서 강대국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1940년대 후반부터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다자주의, 평화유지, 집단안보체제와 같은 중견국으로서의 구체적인 외교전략을 형성하고 실천해나가기 시작했다.

현상학적 접근에 따라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존연구들이 ‘물리적 국력’, ‘다자주의적 외교행태’, ‘국가정체성’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인 구별이며 국가의 여러 가지 속성 중 단면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국가가 중견국으로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는 국력과 정체성, 외교정책 등의 속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계급적 존재로서 중견국 정의의 함의

외교적 행태로서 중견국을 정의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국제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제제도와 규범을 준수하며 분쟁방지, 평화유지, 인권존중 등의 도덕적 외교행위를 보인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는 전통적 중견국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국제연합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비교적 일관된 외교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1940년대 당시 캐나다의 피어슨이 처음으로 ‘미들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했을 때는 미들파워라는 국제적 지위에 부합하는 캐나다만의 외교정책이 전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의 조차도 모호한 것이었다. 하지만 피어슨이 195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견국으로서 캐나다의 외교정책을 형성하고 냉전시기에 적극적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캐나다는 국제사회 내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적, 인도적 규범을 형성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 국가들을 포함하여 북유럽 국가들도 냉전을 지나오면서 하나의 중견국 집단군으로서 비슷한 외교적 행태를 보였고, 국제사회에서 이들은 지속적인 담론화의 과정을 통해 중견국이라는 집단계급적 의미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 국가가 중견국으로 규정될 때 캐나다와 호주가 보여주었던 평화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외교적 행태에 대한 오인효과(misrecognition)가 발생하면서 중견국으로 규정된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동을 기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캐나다, 호주, 북유럽 국가들은 활발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¹⁴⁹⁾ 이들 이외의 한 국가가 중견국으로 규정될 경우 전통적 중견국가들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왔던 긍정적인 국가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중견국은 물리적 국력 상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위계적 의미에 따라 중간적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존재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계급적 존재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캐나다가 미들파워라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구별되며 존재를 인정받고자하는 의도가 더 컸었던 것이다. 이러한 캐나다의 중견국 정체성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때 현재 다른 국가들이 중견국적 지위를 추

149) Prosper Bernard Jr., "Canada and Human Security: From the Axworthy Doctrine to Middle Power Internationalism," *Americ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Vol. 36, No. 2 (Summer 2006).

구하거나 스스로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중견국의 공통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후발국가들이 전통적 중견국가들과 국내적 정치형태나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이 전혀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국력이 높아졌을 때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 중견국들이 쌓아 상징적 권력을 통해 국가의 존재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1차 문서

1) 캐나다 문서

Hilliker, John F. ed. 1980. *Documents on Canadian External Relations. Vol. 9, 1942-1943*. Ottawa: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

Hilliker, John F. ed. 1987. *Documents on Canadian External Relations. Vol. 10, 1944-1945*. Part. 1. Ottawa: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

Hilliker, John F. ed. 1990. *Documents on Canadian External Relations. Vol. 11, 1944-1945*. Part. 2. Ottawa: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

Canada. House of Commons. *Debates*. 1941-45.

Canada. Senate. *Debates*. 1943-45.

2) 미국 문서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3. Vol. 1, General.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3) 회고록, 전기, 일기

Donaghy, Greg, Roussel, Stephane ed. 2004. *Escott Reid: Diplomat and Scholar*,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English, John. 1989. *Shadow of Heaven: The Life of Lester*

- Pearson. Vol. 1, 1897-1948*, Toronto: Lester and Orpen Dennys.
- Pearson, Lester B. 1972. *Mike: the memoirs of the Right Honourable Lester B. Pearson, Vol. 1*,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Pearson, Lester B. 1972. *Mike: the memoirs of the Right Honourable Lester B. Pearson, Vol. 2*,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Pickersgill, J. W. 1960. *The Mackenzie King Record, Vol. 1, 1939-1944*,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Reid, Escott. 1989. *Radical Mandarin: The Memoirs of Escott Rei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Reid, Escott. 1983. *On Duty: A Canadian at the Making of the United Nations, 1945-1946*,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2. 2차 문서

1) 영문 단행본

- Armstrong-Reid, Susan, David Murray. 2008. *Armies of Peace: Canada and the Unrra Years*, Toronto: University of Tronto Press.
- Andrew, Arthur. 1993. *The Rise and Fall of a Middle Power: Canadian Diplomacy from King to Mulroney*, Toronto: J. Lorimer.
- Carr, E. H. 2001.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algrave.
- Chapnick, Adam. 2005. *The middle power project: Canada and*

-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Vancouver: UBC Press.
- Cohen, Andrew. 2003. *While Canada Slept: How We Lost Our Place in the World*,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 Creighton, Donald. 1976. *The Forked Road: Canada, 1939-1957*,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 Cooper, Andrew F., Richard A. Higott, and Kim R. Nossal, 1993.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 Cooper, Andrew F., ed. 1997.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Macmillan Press.
- Eayrs, James. 1964. *In Defence of Canada: From the Great War to the Great Depress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illey, Bruce and O'Neil, Andrew ed. 2014. *Middle powers and the rise of China*,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Gordon, J. King, ed. 1966. *Canada's Role as a Middle Power*, Toronto: Canad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Hildebrand, Robert C. 1990. *Dumbarton Oaks: The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arch for Postwar Security*,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illiker, John. 1990. *Canada's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Volume 1: The early years, 1909-1946*,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Holbraad, Carsten. 1984.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 Holmes, John. 1976. *The better Part of Valour: Essays on Canadian Diplomacy*, Toronto: McClelland & Stewart.
- . 1976. *Canada: A Middle-Aged Power*, Toronto: McClelland & Stewart.

- , 1979. *The Shaping of Peace: Canada and the Search for World Order, 1943-1957, Vol 1*,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ranatstein, J.L. ed. 1970. *Canadian Foreign Policy Since 1945: Middle Power or Satellite?*, Toronto: Copp Clark Publishing Company.
- , 1982. *The Ottawa Men: The Civil Service Mandarins 1935-1957*,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 , 1990. *Canada's War: The Politics of the Mackenzie King Government 1939-1945*,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eating, Tom. 2002. *Canada and the world order: The Multilateralist Tradition in Canadian foreign policy*,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D. 1999.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itrany, David. 1975. *The Func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rtin Robertson.
- Morgenthau, Hans J. 1948.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 Nossal, Kim Richard. 2010. "'Middlepowerhood' and 'Middlepowermanship' in Canadian Foreign Policy," in Nikola Hynek and David Bosold (ed.), *Canad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oft and Hard Strategies of a Middle Power*,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 Pratt, Cranford. ed. 1990. *Middle Power Internationalism: The North-South Dimension*, Kingston and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Ping, Jonathan H. 2005. *Middle Power Statecraft: Indonesia, Malaysia and the Asia-Pacific*, London: Ashgate.

- Stokke, Olav. 1989. *Western Middle Powers and Global Poverty: The Determinants of the Aid Policies of Canada, Denmark, the Netherlands, Norway and Sweden*, Uppsala: 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 Vital, David. 1967. *The Inequality of States: A Study of Small Pow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bridge, George. 1950. *UNRRA: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Vol. 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 영문 학술논문

- Brady, A. 1944. "Dominion Nationalism and the Commonwealth,"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 10, No. 1. (Feb).
- Chapnick, Adam. 1999. "The middle power." *Canadian Foreign Policy*, Vol. 7, No. 2.
- , 2000. "The Canadian middle power myth." *International Journal*, Vol. 55, No. 2.
- , 2007. "The Gray Lecture and Canadian citizenship in history." *The Americ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Vol. 37, No. 4.
- Claxton, Brooke. 1944. "The Place of Canada in Post-War Organizatio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 10, No. 4 (November).
- Gelber, Lionel. 1946. "Canada's New Stature." *Foreign Affairs*, Vol.

- 24, No. 2 (January).
- Gecelovsky, Paul. 2011. "Constructing a middle power: Ideas and Canadian foreign policy," *Canadian Foreign Policy Journal*, Vol. 15, No. 1 (Mar).
- Godbout, Adeard. 1943 "Canada: Unity in Diversity." *Foreign Affairs*, Vol. 21, No. 3. (April).
- Haas, Peter M. 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 Holmes, John W. 1963. "Canadian External Policies since 1945," *International Journal*, Vol. 18, NO. 2 (Spring).
- Jordaan, Eduard. 2003. "The Concept of a Middle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Distinguishing between Emerging and Traditional Middle Powers," *Politikon: South African Journal of Political Studies*, Vol. 30, No. 1.
- Keenleyside, H.L. 1945. "Canada's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International Journal*, Vol. 1, No. 3. (July)
- Miller, A. J. 1980. "The Functional Principle in Canada's External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Vol. 35, NO. 2. (Spring).
- Paul, Gecelovsky. 2009. "Constructing a middle power: Ideas and Canadian foreign policy." *Canadian Foreign Policy Journal*, Vol. 15, No. 1.
- Prosper Bernard Jr. 2006. "Canada and Human Security: From the Axworthy Doctrine to Middle Power Internationalism." *Americ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Vol. 36, No. 2.
- Simpson, Erika. 1999. "The Principles of Liberal Internationalism According to Lester Pearson," *Journal of Canadian Studies*, Vol. 34, No. 1, (Spring).
- Soward, F.H. 1977-78. "Inside a Canadian Triangle: The University, the CIIA, and the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a Personal Record," *International Journal* Vol. 33, No. 1 (Winter).

Wendt, Alexander. 2004. "The state as person in international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3) 국문 단행본

Mead, George H. 나은영 역. 2010. 『정신·자아·사회: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파주: 한길사.

Bourdieu, P. 최종철 역. 200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하영선 외 역. 2012.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존 미어셰이머, 이춘근 역. 2004.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파주: 나남.

홍성민. 2001. 『문화와 아비투스』, 서울: 나남.

히라노 겐이치로. 장인성·김동명 역. 2004. 『국제문화론』, 서울: 풀빛신서.

4) 국문 학술논문

김영호. 2009.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유주의 사상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Vol. 12, No. 1.

김치욱. 2009.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Vol. 49집, No. 1.

박인철. 2004. "정치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의 가능성: 아렌트의 눈으로 본 후설."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23.

신옥희, 1998.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의미와 한계." 『국제정치학회보』, Vol. 32, No. 2.

이남인. 2001. "상호주관성의 현상학: 후설과 레비나스." 『철학과 현상학

- 연구』, Vol. 18.
- , 2003. “발생적 현상학과 상호주관성 문제.” 『철학사상』, Vol. 16, No.-.
- 이종관, 1991. “과학, 현상학 그리고 세계: 탈근대적 세계를 향한 현상학적 모색.” 『철학연구』, Vol. 28, No. 1.
- 전재성. 2014. “국제정치 조직원리 논쟁과 위계론.” 『국제정치논총』, Vol. 54, No. 2.
- 최정운. 2007. “문화와 권력.” 『세계정치』, Vol. 28, No. 1.
- 홍성민. 2002. “정체성과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Vol. Vol. 42, No. 1.

Abstract

Analysis of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Canada as Middle Power
1942-45
Phenomenological Approach

Eunhee Ju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looks at the process that Canada has formed its national identity as a 'middle power' and further investigates the specific meaning regarding to its formation. In short, Canada formed the relationship through mediating mutual recogni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enerally, in studying the national foreign policy, it is important to analyse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the formation of foreign strategies. However, this dissertation claims

that 'national self-discovery' should be the primary research concern.

The 'process of self-discovery' that a country recognizes and defines itself in the world acts at the more fundamental level tha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works as an epistemological framework to recognise the environment surrounding itself. This dissertation analyses the origin of the national identity of Canada which is classified as a 'middle pow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us tr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rocess of self-discovery'.

This dissertation puts forth Edmund Husserl's discussion related to the 'intersubjectivity' as a methodological tool to elucidate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nation. Husserl's intersubjectivity theory describes 'self-definition' to be configured through a continuous interactions with others. For this reason, Husserl's theory can be a useful analytical tool to see the process of 'self-definition' while Canada makes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and defines itself as a 'middle power'.

Canada was part of the Commonwealth of Nations and did not have its own independent foreign policy until the 1930s when Canada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to grow as an influential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compared to its actual national strength and it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1940s, superpowers considered Canada only as one of the smaller nations. Foreign officials, including the Canadian prime minister became more and more aware of this fact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solution, Canadian government came up with 'functional principle' as its foreign policy but this policy only

confirmed the need to acknowledge a nation's functional ability and did not provide a theoretical basis to acknowledge a nation's existence. During this period, Canada was excluded from the community of superpowers despite its actual national strength and it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main objective was acknowledgement from other nations of not only its functional ability but it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is process, it could establish its national identity as a 'middle power' that existed outside the superpowers, and was separated from the smaller nations at the same time. The concept of 'middle powers' as a national identity was therefore created through a continuous interactions with others.

In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will highlight the origins of the study of 'middle powers' that is rising as an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through tracking the formation of Canada's national identity and examining a nation's strategy of promoting itself through self-identification as a 'middle power'.

Keyword: Canada, Middle Power, Nation Identity, Intersubjectivity, Hierarchical Being, Formation of Identity in Interaction with Others

Student Number: 2011-23189